2019년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차 례

머 리 말

주체 108(2019)년은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건설의 일대 앙양기를 열어나갈데 대한 당의 호소따라 조선인민이 영웅적투쟁을 벌려 난국을 맞받아 도도히 전진비약해나가는 주체조선의 강인한 기상과 막강한 잠재력을 크게 과시한 력사적인 해였다.

조선인민은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안전을 지킬수 있는 국가의 힘, 국방력강화에서 거대한 성과들을 끊임없이 비축하였으며 인민경제 거의 모든 부문에서 소중한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정치, 군사, 경제, 외교 등 여러 분야에서 이해에 이룩된 위대한 승리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며 당중앙뜨락에 운명의 피줄을 잇고 령도자와 뜻과 발걸음을 함께 하는 조선인민의 높은 충성심과 불굴의 투쟁의 필연적결과이다.

당의 로선과 전략, 리상을 관철하기 위한 혁명적진군속에서 조선인민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구상과 결심은 곧 과학이고 실천이며 승리라는 철리를 더욱 깊이 새기였다.

도서 《2019 년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에서는 주체 108(2019)년에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의 주요내용을 《로동신문》에 실린 자료에 기초하여 서술하였다.

신 년 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무엇보다먼저 주체 107(2018)년은 조선로동당의 자주로선과 전략적결단에 의하여 대내외정세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사회주의건설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력사적인 해였다고 하시면서 이 해에 이룩된 성과에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조선인민은 4 월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 7 기 제 3 차전원회의를 계기로 조선혁명을 새롭게 상승시키고 사회주의의 전진속도를 계속 높여나갔으며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일흔돐을 성대히 경축하였다. 전체 인민이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관철에 떨쳐나 자립경제의 토대를 일층 강화하였으며 과학교육사업에서와 문학예술부문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이 일어났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으로 주체 108(2019)년에 사회주의건설의 전 전선에서 혁명적앙양을 일으켜나가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가자!>, 이것이 우리가 들고나가야 할 구호입니다. 우리는 조선혁명의 전 로정에서 언제나 투쟁의 기치가 되고 비약의 원동력으로 되여온 자력갱생을 번영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사회주의건설의 전 전선에서 혁명적앙양을 일으켜나가야 합니다.》 (《신년사》 년 1 월 1 일, 5 페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선 사회주의건설의 전 전선에서 혁명적앙양을 일으켜나가기 위한 과업을 밝혀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사회주의자립경제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가의

정치사상적힘을 백방으로 다져나가며 사회주의문명건설을 다그치고 국가방위력을 튼튼히 다지는것을 이 해 사회주의건설의 전 전선에서 혁명적앙양을 일으켜나가기 위한 과업으로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또한 사회주의건설의 전 전선에서 혁명적앙양을 일으켜나가기 위한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그이께서는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일군들이 결심과 각오를 단단히 하고 분발하여 투쟁하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청년들이 한몫 단단히 하며 당조직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을 이 해 사회주의건설의 전 전선에서 혁명적앙양을 일으켜나가기 위한 방도로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으로 북남관계발전과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나서는 과업과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대외정책적립장을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선 북남관계발전과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나서는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북남사이의 군사적적대관계를 근원적으로 청산하고 조선반도를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들며 북남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키며 전민족적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그 실현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는것을 북남관계발전과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나서는 과업으로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또한 조미관계와 관련한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립장과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대외정책적립장을 밝히시였다.

1. 사회주의국가의 정치사상적힘을 백방으로 다져나가기 위하여

1) 당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확대회의 지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가 4 월 9 일 오후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임에 따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사회를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제 14 기 제 1 차회의에 제출할 《주체 107(2018)년 국가예산집행정형과 주체 108(2019)년 국가예산에 대하여》를 토의하고 승인하였다.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또한 《당중앙위원회 제 7 기 제 4 차전원회의를 소집함에 대하여》를 토의하고 소집날자와 전원회의 의정을 결정하였다.

*《로동신문》2019 년 4 월 10 일부

(2)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7 기 제 4 차 전원회의 지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7 기 제 4 차전원회의가 주체 108(2019)년 4 월 10 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전원회의를 지도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임에 따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사회를 하시였다.

전원회의에는 다음과 같은 의정들이 상정되였다.

1. 사회주의건설에서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나갈데 대하여

2. 최고인민회의 제 14 기 제 1 차회의에 제출할 국가지도기관구성안에 대하여

3. 조직문제

전원회의에서는 첫째 의정이 토의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첫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나라의 자립적경제토대를 강화하며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기 위하여 당중앙위원회 제 7 기 제 4 차전원회의를 소집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당 제 7 차대회이후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투쟁과정에서의 성과와 결함을 총화분석하시고 자립경제의 위력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는데서 반드시 점령하여야 할 당면목표와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당은 우리 식 사회주의건설의 현 상태와 전망, 정세발전의 추이를 과학적으로 내다보고 올해 신년사에서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가자!》는 혁명적구호를 제시하였다고 하시면서 자주적발전과 번영의 보검인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으로 계속혁신, 계속전진, 련속공격하여 자력으로 비약하는 사회주의건설의 일대 전환기를 열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나가는데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문제는 자립경제의 토대를 확대보강하여 나라의

경제를 새로운 장성단계에로 이행시킬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당면한 인민경제 부문별과업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첫째 의정에 대한 토론들이 진행되였다.

토론자들은 일치하게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불멸의 지침을 밝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력사적인 보고를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였다.

토론자들은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를 반영한 당의 확고부동한 정치로선대로 자력갱생의 기치를 일관하게, 더 높이 추켜들고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결사관철할 결의들을 엄숙히 표명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둘째 의정을 토의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 제 14 기 제 1 차회의에 제출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을 비롯한 국가지도기관구성안을 제기하시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상정된 국가지도기관구성안을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 제출할데 대하여 전원찬성으로 결정하였다.

전원회의는 셋째 의정인 조직문제를 보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전원회의에서 력사적인 결론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 7 기 제 4 차전원회의가 모든 참가자들의 높은 정치적열의속에 성과적으로 진행된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번 전원회의가 자력갱생을 조선혁명의 영원한 생명선으로 내세우고 자립경제건설의 강력한 토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며 확고한 주체적립장에서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전진시켜나가는데서 중요한

리정표를 마련한 력사적계기로 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자력갱생의 혁명적립장과 원칙을 구현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력갱생대진군을 거세차게 벌려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전원회의가 제시한 투쟁목표들을 성과적으로 달성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고 자력으로 승승장구하는 우리 국가의 위용을 다시한번 힘있게 떨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로동신문》2019년 4월 11일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4월 12일 새로 선거된 당 및 국가지도기관 성원들을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만나주시고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성원들을 특별히 만나 혁명적동지애의 정을 뜨겁게 나누시고 조선로동당력사에 길이 전해질 불멸의 화폭들을 남기시였으며 국무위원회 성원들과도 력사적인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로동신문》2019년 4월 13일부

(3)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 지도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조선의 전반적지역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는 태풍 13호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비상확대회의를 9월 6일 오전 긴급소집하고 국가적인 비상재해방지대책을 토의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비상확대회의를 지도하시였다.

비상확대회의에서는 조선반도로 빠르게 북상하고있는 태풍 13호의 세기와 예상자리길, 특성 및 예상피해지역과 규모에 대한 분석보고를

청취하고 이에 대처하여 국가적인 긴급비상대책들을 세우기 위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회의에서 태풍 13 호에 의해 초래될 피해의 심각성과 지난 시기 조선에서의 태풍피해실례를 상세히 통보하시고 자연재해에 대처한 전국적인 위기관리실태에 대하여 분석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자연재해로부터 초래되는 파국적인 후과를 최소화하여 인민들의 생명재산과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며 나라의 자연부원과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기 위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전국가적으로, 전당적으로, 전군적으로 태풍과 무더기비에 의한 피해를 미리막기 위한 투쟁을 조직전개하기 위한 부문별, 단위별, 지역별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태풍 13 호의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은 방대한 투쟁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일군들이 당과 인민의 기대, 자기의 책임을 무겁게 자각하고 언제나 인민들과 고락을 함께 하며 맡겨진 과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태풍피해를 막기 위한 투쟁에서 응당한 성과를 거두리라는것을 굳게 믿는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를 결속하시면서 인민군대가 자연재해로부터 인민의 안녕과 생명재산을 지켜내는것을 응당한 본분, 마땅한 사명으로 여기고 맡겨진 성스러운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하시며 누구도 대신 못할 나라의 억센 기둥으로서의 역할을 단단히 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로동신문》2019 년 9 월 7 일부

(4)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7 기 제 5 차 전원회의 지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7 기 제 5 차전원회의가 12 월 28 일부터

31 일까지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였다.

전원회의에는 다음과 같은 의정들이 상정되였다.

1. 조성된 대내외형세하에서 우리의 당면한 투쟁방향에 대하여
2. 조직문제에 대하여
3. 당중앙위원회 구호집을 수정보충할데 대하여
4. 조선로동당창건 75 돐을 성대히 기념할데 대하여

전원회의에서는 첫째 의정이 토의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첫째 의정에 대한 력사적인 보고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 7 기 제 4 차전원회의가 있은 때로부터 지난 8 개월간은 대단히 강도높은 투쟁과 과감한 전진의 련속이였다고 하시면서 조선로동당이 그 기간 항상 인민의 절실한 요구와 권익, 국가의 자주권과 안전보장을 중심에 두고 정확한 대내외정치로선을 수립하고 견지하며 그를 관철하기 위하여 부단히 투쟁한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당중앙은 조선혁명의 거창하고도 줄기찬 전진도상에 직면한 주객관적인 장애와 난관들을 전면적으로 심도있게 분석평가하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한 결정적대책을 강구할 취지에서 이번 전원회의를 소집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현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정면돌파전을 벌릴데 대한 혁명적로선을 천명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세기를 이어온 조미대결은 오늘에 와서 자력갱생과 제재와의 대결로 압축되여 명백한 대결그림을 그리고있다고 하시면서 미국과의 장기적대립을 예고하는 조성된 현정세는 우리가 앞으로도 적대세력들의 제재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각 방면에서 내부적힘을 보다 강화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고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는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시대가 부여한 중대한 임무를 기꺼이 떠메고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적들의 제재봉쇄책동을 총파탄시키기 위한 정면돌파전에 매진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전진을 저애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전으로 뚫고나가자!》**라는 투쟁구호를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의 정면돌파전에서 기본전선은 경제전선이라고 하시면서 나라의 경제토대를 재정비하고 가능한 생산잠재력을 총발동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수요를 충분히 보장하는것을 현시기 경제부문앞에 나서는 당면과업으로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경제사업체계와 질서를 정돈할데 대한 강령적인 과업과 인민경제 주요공업부문들의 과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자립경제를 떠받드는 주요공업부문들에서부터 겹쌓인 난관을 정면돌파하고 실제적인 생산적앙양을 일으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금속공업, 화학공업, 전력공업, 석탄공업, 기계공업, 건재공업, 철도운수, 경공업부문들에 산적되여있는 페단들과 부진상태를 전면적으로 분석하시고 경제사업에서 진일보를 가져오기 위한 과학적이며 실질적인 대책들을 일일이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과학, 교육, 보건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서와 증산절약과 질제고운동을 힘있게 벌리며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자연재해방지대책을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장엄한 정면돌파전을 정치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담보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전당적, 전국가적, 전사회적으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현상을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을 강도높이 전개하며 근로단체사업을 강화하고 전사회적으로 도덕기강을 강하게

세울데 대한 문제들을 제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력을 비상히 높여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모두가 불굴의 혁명신념과 불같은 조국애, 견인불발의 투쟁정신으로 계속 힘차게 투쟁한다면 난관은 격파될것이며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가 온 나라 전체 인민의 실생활로 될 새로운 승리를 맞이하게 될것이라고 확언하시면서 모두다 혁명앞에 가로놓인 준엄한 난국을 정면돌파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포부와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오늘의 영광스러운 투쟁에서 선구자, 기수가 되여 승리의 진격로를 힘차게 열어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첫째 의정에 대한 결정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둘째 의정인 조직문제를 보았다.

전원회의에서는 셋째 의정으로 당중앙위원회 구호집을 수정보충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결정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넷째 의정으로 조선로동당창건 75 돐을 성대히 기념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지도밑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 7 기 제 5 차전원회의의 기본사상, 기본정신은 정세가 좋아지기를 앉아서 기다릴것이 아니라 정면돌파전을 벌려야 한다는것이다. 다시말하여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조선인민이 편하게 살도록 가만두리라는 꿈은 꾸지도 말아야 하며 사회주의건설의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난관을 오직 자력갱생의 힘으로 정면돌파해야 한다는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혁명가들이 혁명을 하자면 인민으로부터 받는 값진 믿음을 생의 전부로 받아안아야 한다고 하시며 조선인민과 같은 훌륭한 인민을 위해 뛰고 또 뛰는 충실하고 부지런한 인민의 심부름군이 되자는것을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7 기 제 5 차전원회의는 시대가 부여한

중대한 임무를 억척같이 떠메고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활로를 열기 위한 영예로운 투쟁에 전당, 전민, 전군을 총궐기, 총매진시키는데서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가려는 전체 참가자들의 비상한 정치적자각과 혁명적열의속에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 7 기 제 5 차전원회의가 진행된 뜻깊은 장소에서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로동신문》2020 년 1 월 1 일부

2) 인민정권을 반석같이 다지기 위하여

(1)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참가하시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3 월 10 일 최고인민회의 제 14 기 대의원선거를 위한 제 10 호구 제 40 호분구선거장에서 선거에 참가하시였다.

오전 11 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김책공업종합대학에 꾸려진 선거장에 도착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제 10 호구 제 40 호분구선거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선거표를 받으시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인 홍서헌동지에게 투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대의원후보자인 홍서헌동지와 담화를 나누시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주요전구마다에서 김책공업종합대학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고, 대학이 과학교육사업과 경제의 활성화, 인민생활향상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데서 우리 당이 제일 믿고있는 맏아들, 나라의 과학교육과 경제건설을 견인하는 기관차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가도록 앞으로 일을 더 잘하기 바란다고 뜨겁게

고무격려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대학이 차지하는 위치와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시면서 대학이 나아갈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대학의 교육사업과 과학설비, 정보기술의 현대화를 위해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로동신문》2019 년 3 월 11 일부

(2) 도, 시, 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참가하시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7 월 21 일 도, 시, 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함경남도 제 201 호선거구 제 94 호분구선거장에서 선거에 참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분구선거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선거표를 받으시고 대의원후보자들에게 투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대의원후보자들을 만나시여 인민의 대표로서 숭고한 자각을 가지고 인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자기앞에 맡겨진 본분을 다하여 인민의 충복이 되기를 바란다고 따뜻이 고무격려해주시였다.

*《로동신문》2019 년 7 월 22 일부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 14 기 제 1 차회의에 참석하시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전체 조선인민의 최고대표자이며 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신 크나큰 긍지와 환희가 온 나라 강산에 차넘치는 속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 14 기 제 1 차회의 2 일회의가

4월 12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회의에 참석하시여 력사적인 시정연설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연설에서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가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최고강령이며 사회주의국가건설의 총적방향, 총적목표이라는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투쟁과업,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현 단계의 투쟁에서 공화국정부앞에 나서고있는 중심과업과 실천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주시였으며 조성된 현정세를 분석평가하시고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가 견지하여야 할 대외정책적립장을 천명하시였다.

전체 대의원들은 력사적인 시정연설에 조선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한 공화국정권의 발전방향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진로가 명확히 밝혀져있는데 대하여 일치하게 인정하면서 열광적인 박수로 전적인 지지찬동을 표시하였다.

*《로동신문》2019년 4월 13일부

(4) 새로 구성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성원들,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만수대의사당앞에서 4월 12일 새로 구성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성원들,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인민정권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공화국의 힘찬 전진을 가속화하는데서 의의깊은 계기로 되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를 높은 정치적열의속에 성과적으로 진행한 대의원들을 열렬히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이 당과 인민의 두터운 신임과 기대를 언제나 깊이 자각하고 인민의 참된 충복, 당정책관철의 제일기수로서의 혁명적본분을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새로 구성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성원들과 기념사진들을 찍으신데 이어 최고인민회의 제 14 기 전체 대의원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로동신문》2019 년 4 월 13 일부

3) 백두의 혁명전통을 길이 빛내이시려

(1) 백두산정에 오르시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백두의 첫눈을 맞으시며 몸소 백마를 타시고 백두산정에 오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백마를 타시고 령봉에 거연히 서시여 백두의 산악같은 신념과 의지로 최강국의 대업을 위해 달음쳐오신 간고한 전투적행로들과 격변의 나날들을 뜨겁게 새겨보시면서 또다시 용기충천하여 넘어야 할 혁명의 준령들을 안아보시는듯 첩첩히 늘어선 산발들을 굽어보시였다.

장엄한 백두산정에 거연히 서계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근엄하신 안광에는 불어오는 온갖 역풍을 백두의 폭풍으로 쳐갈기며 기운차게 자력부강해나가는 사회주의강국의 진군활로를 환하게 내다보시는 천출명장의 숭엄한 빛발이 넘쳐흐르고있었다.

*《로동신문》2019 년 10 월 16 일부

(2)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를 돌아보시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백두전구에 슴배여있는 위대한 수령님의 성스러운 발자취와 항일혁명선렬들의 고귀한 넋을 새기시며 청봉숙영지, 건창숙영지, 리명수구(당시), 백두산밀영, 무두봉밀영, 간백산밀영, 대각봉밀영을 비롯한 삼지연군(당시)안의 혁명전적지, 사적지들과 답사숙영소들, 무포숙영지와 대홍단혁명전적지도 돌아보시면서 백두산전구 혁명전적지보존관리사업과 답사실태를 료해하시고 혁명전통교양의 력사적중요성과 그를 더 높은 수준에서 강화하기 위한 방도들에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동행한 지휘성원들과 함께 군마를 타시고 백두대지를 힘차게 달리시며 백두광야에 뜨거운 선혈을 뿌려 조선혁명사의 첫 페지를 장엄히 아로새겨온 빨찌산의 피어린 력사를 뜨겁게 안아보시였다.

그이께서는 당의 정력적인 령도와 전국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의 충성의 마음에 떠받들려 백두산아래 첫동네인 삼지연군(당시)이 혁명의 고향군으로서의 면모를 일신하고 혁명전통교양의 중심지, 실체험지, 대전당으로 더욱 훌륭히 꾸려졌다고 하시면서 이는 조선혁명의 만년초석인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영원한 생명선으로 받아안고 만대에 길이 빛내이며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 조선인민의 철석같은 신념과 절대불변의 의지의 발현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혁명전통교양을 더욱더 강화하는것은 현시기 조선혁명앞에 나서는 전략적과업으로 된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과 사적지들마다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이 그대로 맥박치고있다고 하시면서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상, 조선로동당의 혁명사상과 굴함없는 혁명정신을 알자면 혁명전적지답사를 통한 교양을 많이 받아야 한다고, 특히 혁명의 지휘성원들이 수령님과 장군님을 닮은 견실하고 유능한 정치활동가들로 자기자신들을 철저히 준비하고 무장하려면 백두산혁명전적지답사를 통한 《백두산대학》을 나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백두에 뿌리내린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영원히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그 위대한 전통에 기초한 불굴의 공격사상으로 혁명의 난국을 타개하고 개척로를 열어제끼자는것은 조선로동당의 일관한 결심이고 의지라고 하시면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백두의 혁명전통으로 교양하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해나가기 위한 방도적문제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전적지들을 돌아보신데 이어 또다시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오르시였다.

*《로동신문》2019년 12월 4일부

2. 인민군대가 사회주의건설에서 선봉에 서도록

1) 1116호농장 현지지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1116호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혁명사적교양실을 돌아보시고 농장에서 새로 육종한 다수확품종의 농작물들을 보아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어느 단위, 어느 부문에 가서나 늘 강조하는것이지만 우리가 믿을것은 과학기술의 힘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갈 항구적방침은 첨단과학기술전의 직접적담당자들인 과학자,

기술자들을 애국적신념이 확고한 혁명가들로 키우고 그들을 적극 우대하고 내세워주며 사업과 생활을 잘 돌봐주고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최대로 발양시키는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드팀없이 관철하자면 농업과학연구부문을 추켜세우기 위한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방향을 견지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새로 건설한 온실과 농작물시험 및 재배포전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육종 및 육성사업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종자육종사업을 진행할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갖추어진 현대적인 온실에서 재배하고있는 파와 고추를 비롯한 수십가지의 우수한 남새작물들을 보시고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농장에서 해마다 당의 종자혁명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일관하게 벌려 큰 성과를 이룩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앞으로도 세계적수준의 우량품종들을 더 많이 육종개발함으로써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푸는데서 결정적전환을 일으켜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

*《로동신문》2019년 10월 9일부

2) 조선인민군 제2기 제7차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에서 당선된 군부대들의 군인가족예술소조원들과 함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6월 2일 조선인민군 제2기 제7차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에서 당선된 군부대들의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공연에는 조선인민군 제 4 군단과 항공 및 반항공군의 군인가족예술소조원들이 출연하였다.

공연이 끝난 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전투임무수행중에 희생된 비행사의 아들과 영광의 대회장에서 뜻깊은 이름을 받아안은 어린이를 몸가까이 불러 사랑의 한품에 안아주시며 앞날을 축복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군인가족예술소조원들이 부대마다에 깃든 당의 령도업적과 자기들의 실생활을 바탕으로 하여 당정책을 민감하게 반영한 사상예술적감화력이 큰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당의 군중문화예술중시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실증해준 공연은 전군의 장병들과 군인가족들의 마음이 당중앙과 어떻게 혈연의 정으로 이어져있는가를 감동깊게 보여주었으며 우리의 일심일체의 참모습과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결사옹위하는 군인가족들의 사상정신세계를 잘 알게 한 공연이라고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의 사상문화건설에서 추동성과 호소성이 강한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군인가족들이 지닌 혁명적이며 고상한 정신세계와 문화적소양을 조선혁명의 원동력, 온 사회의 본보기로 내세워주시고 모든 사회성원들이 군인가족들의 모습을 거울로 삼고 살며 투쟁해나갈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군인가족들이 당정책의 훌륭한 해설자, 선전자로서 공연무대에 펼친 혁명적이고 아름다운 생활을 초소마다에서 더 활짝 꽃피워가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시였다.

*《로동신문》2019 년 6 월 3 일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6 월 4 일 인민무력성에서 조선인민군 제 2 기 제 7 차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에서 당선된 군부대들의

군인가족예술소조원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따뜻이 답례하시며 고결한 인생관과 높은 문화적소양을 지니고 초소와 일터마다에서 혁명적인 문화를 창조하며 아름다운 삶을 수놓아가고있는 군인가족예술소조원들에게 뜨거운 동지적인사를 보내시였다.

그이께서는 군인가족예술소조원들이 앞으로도 군인들을 위한 사랑과 헌신으로 조국의 방선초소들을 금성철벽으로 다지고 당정책과 시대정신이 맥박치는 진군가로 온 사회에 혁명적인 투쟁기풍, 약동하는 생활의 숨결을 더해준 자랑스러운 전통을 계속 빛내여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친정집을 다녀가는 자식들을 위하는 다심한 어버이의 심정으로 군인가족예술소조원들에게 대를 두고 잊지 못할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로동신문》2019 년 6 월 5 일부

3) 8 월25 일수산사업소와 새로 건설한 통천물고기가공사업소 현지지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8 월 25 일수산사업소와 새로 건설한 통천물고기가공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황금해의 고장, 단풍호의 고향으로 늘 정답게 부르시는 정든 수산사업소인 8 월 25 일수산사업소를 먼저 찾으시였다.

그이께서는 부두에 마중나온 수산사업소 책임일군들과 반가운 인사를 나누시며 어로공들과 가족들의 안부를 따뜻이 물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이곳 수산사업소 지배인은 욕심이 지내 커서 매번

최고사령관에게 이것을 하자, 저것을 하자고 많은것을 제기하는데 정말 찾아보기 쉽지 않은 일군이라고, 최고사령관을 돕자고 부리는 욕심이고 인민들의 기대에 보답하자고 부리는 욕심이며 군인들에게 푸짐한 식탁을 마련해주자고 부리는 욕심인데 그 이상 애국적이고 충성스러우며 바른 욕심이 어데 있겠는가고, 그래서 이 동무에게는 더더욱 정이 가고 이 동무가 일하는 사업소 어로공들과 종업원들에게도 더 정이 가는것 같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사업소의 책임일군들에게 피복과 기초식품, 생활필수품 등 공급은 기준대로 제대로 받고있는가도 하나하나 물어주시며 일군들이 생산실적에만 빠져있지 말고 어로공들의 생활상편의를 잘 돌봐주고 가족들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려줄데 대하여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수산사업소 혁명사적교양실을 돌아보시면서 지난 6 년간 이 사업소가 당의 령도밑에 수산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걸어온 발전행로를 감회깊이 돌이켜보시였다.

그이께서는 당의 수산정책관철에서 핵심으로 육성되여온 이곳 수산사업소의 발전력사가 종합게시되여있는 혁명사적교양실을 통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벌려 모든 어로공들과 종업원들이 황금해력사의 첫 페지를 쓴 자랑스러운 주인공들답게 더 높은 만선의 배고동소리로 당을 옹위해나가는 선구자, 돌격대의 영예를 변함없이 계속 빛내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8 월 25 일수산사업소 예술소조공연을 보아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사상적으로나 예술적으로 흠잡을데 없는 공연을 통해 깊은 감명을 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시며 출연자들을 년말에 평양으로 직접 초청하시는 한없는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날 새로 건설한 통천물고기가공사업소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렇게 요란한 물고기가공사업소가 일떠선것을 보니 그때 우리가 이런 결심을 하기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이제는 아무리 물고기사태가 나도 얼마든지 가공처리, 저장할수 있게 되였다고, 부대수산사업소들의 가공처리능력이 전반적으로 강화되여 이제는 가족들, 종업원들이 힘든 일에서 해방되고 물고기의 질도 높일수 있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신선한 물고기를 받아안고 우리 군대장병들이 정말 좋아할것이라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군인들의 식생활을 위해서는 아까울것도, 주저할것도 없다고 하시면서 자신과 우리 지휘성원동무들을 믿고 조국보위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딸들을 맡긴 이 나라 부모들의 믿음과 기대를 잊지 말고 그에 보답하기 위하여 군인생활향상을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더 많이 찾아하고 불가능한 일도 가능한 일로 만들어나가는데서 모두가 한마음한뜻으로 지혜와 정열을 다해나가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통천물고기가공사업소에 어로공들을 위한 편의건물과 식당도 건설하여 그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할수 있게 구상한것도 당의 의도에 철저히 부합된다고 하시면서 평가의 말씀을 주시였다.

*《로동신문》2019 년 11 월 19 일부

3. 사회주의자립경제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1) 전력문제해결에 선차적힘을 넣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5 월 4 일 금야강 2 호발전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발전소건설경위와 실태에 대한 해설을 들으신 다음 언제와 발전기실을 비롯한 발전소의 여러 요소들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과 기술장비상태, 전력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금야군에서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게 중소형수력발전소들을 건설하여 전력문제를 풀데 대한 당정책을 민감하게 받아물고 자체의 힘으로 발전소를 일떠세우고 전기생산을 정상화하려고 잡도리를 하고있는것은 평가할만 한 성과라고 하시면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조국의 만년재부를 마련한 군내인민들의 자랑찬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소문없이 큰일을 한 금야군인민들을 무엇이라도 도와주어야 마음이 편할것 같다고 하시면서 금야강 2 호발전소에 아직 설치하지 못한 발전기와 변압기들을 자신께서 직접 책임지고 꼭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금야군에서 커다란 재부인 발전소관리운영을 잘하여 인민들이 실지 덕을 보게 하고 군안의 지방공업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함으로써 군이 살기 좋고 아름다운 군으로 번창하고 활기있게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따뜻이 고무해주시였다.

*《로동신문》2019년 5월 5일부

2)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1) 개업을 앞둔 대성백화점 현지지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개업을 앞둔 대성백화점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매 층의 매장들을 돌아보시며 백화점개건 및 증축공사정형과 상품전시상태 등 상업봉사준비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뜻깊은 태양절을 앞두고 수도의 거리에 또 하나의 멋들어진 종합봉사기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질적으로 높이는데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게 될 백화점이 일떠선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현대판백화점이 훌륭히 꾸려진 결과 수도시민들에게 질좋은 갖가지 식료품들과 의복, 신발들, 가정용품과 일용잡화들, 학용품과 문화용품들을 더 많이 보장할수 있게 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백화점의 모든 요소들을 당에서 비준해준 형성안의 요구대로 시공을 잘하고 구매자들의 편의를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게 꾸린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런 훌륭한 백화점을 꾸리기 위해 많은 수고를 하였겠다고 하시며 대성백화점과 관계부문 일군들의 헌신적인 인민복무정신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당의 상업정책의 요구에 맞게 백화점관리운영과 상업봉사활동을 개선해나가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들을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상업부문 일군들과 봉사자들이 조선로동당의 인민관과 상업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옳바른 상업전략을 세우며 인민을 위한 봉사자, 복무자로서의 높은 자각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인민들의 요구와 구미, 기호에 맞게 헌신적으로 해나갈것을 당부하시였다.

*《로동신문》2019 년 4 월 8 일부

(2) 신창양어장 현지지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4 월 16 일 신창양어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새로 훌륭히 꾸린 혁명사적교양실을 돌아보시였다.

그이께서는 혁명사적교양실을 잘 꾸린데 대하여 평가하시면서 양어장에 와서 귀중한 혁명사적자료들을 다시 보니 한평생 인민들과 인민군전사들을 위해 마음써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생각이 더해진다고, 특히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여러차례나 찾아오시여 양어장을 양어의 본보기단위로, 세계적인 양어기지로 개건현대화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적인 로고를 떠나 오늘의 신창양어장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양어장에 아로새겨진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사적을 통한 위대성교양을 깊이있게 진행함으로써 양어의 든든한 기초를 마련하시고 밝은 전망을 열어주신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양어장구내를 거니시며 규모있게 펼쳐진 양어못들이 한폭의 그림처럼 안겨오는 아름다운 전경을 부감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양어장환경이 언제 와보아도 깨끗하고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서 수림화, 원림화를 실현할데 대한 당정책이 가장 정확히 구현된 양어장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양어장일군들로부터 현지지도과업관철정형에 대한 해설을 들으신 다음 여러 양어못들과 물고기알깨우기장 등을 돌아보시면서 양어장의 관리운영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나라의 양어과학기술을 높은 경지에 올려세우는데서 인민군대가 많은 일을 하였다고 하시면서 온 나라가 인민군대의 모범을 본받아 당의 양어정책을 끝까지 관철하여 인민들과 인민군군인들에게 맛좋고 영양가높은 물고기를 많이 먹이시기 위해 그토록 마음써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을 반드시 실현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신창양어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더 높은 목표를 내걸고 물고기생산에서 비약적발전을 이룩함으로써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대로 더 많은 물고기들을 수도의 급양봉사부문과 군인들에게 보내주어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신창양어장이 양어의 주체화, 과학화, 현대화, 공업화, 집약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서 계속 기치를 들고나감으로써 우리 나라 양어기술발전의 척도를 보여주는 표준양어장, 나라의 양어를 발전시키는데서 본보기단위, 교육단위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해나갈데 대한 당의 믿음과 기대에 보답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나라의 전반적양어사업에서 극복해야 할 문제점들과 양어부문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로동신문》2019년 4월 17일부

(3) 온실바다를 펼치시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경성군 중평남새온실농장과 양묘장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전망대에 오르시여 먼지만 흩날리던 이곳에 수십정보의 현대적인 남새온실과 년간 2, 000 만그루의 나무모를 생산하는 양묘장이 일떠서고 온실농장과 양묘장의 종업원들이 살게 될 수백세대의 소층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 학교, 유치원, 탁아소, 병원, 각종 편의봉사시설들이 즐비하게 들어섰다고 하시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것이 바로 이런것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하시며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수경온실과 토양온실들을 돌아보시면서 농장의 경영관리를 짜고들어 인민들의 식생활향상과 직결된 집약화된 남새생산기지로서의 생활력이 생산성과로 나타나야 한다고 하시면서 선진적인 남새재배기술과 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수확고를 높이고 생산을 활성화함으로써 함경북도인민들이 꼭 농장덕을 단단히 보게 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농장종업원들의 주택지구를 돌아보시였다.

그이께서는 농장마을을 도시부럽지 않게 훌륭하게 건설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중평남새온실농장마을은 사회주의농촌문화주택건설의 본보기, 전형으로 내세울수 있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지금 건설하고있는 중평남새온실농장은 온실건설에서 하나의 혁명, 본보기이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각 도들에 이와 같은 현대적인 온실농장을 하나씩 건설하여 인민들에게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갖가지 신선한 남새를 공급하는것은 자신께서 오래전부터 꼭 하고싶었던 일이라고, 전국적범위에서 온실농장을 현대적으로 실리에 맞게 건설하는 사업을 계속 다그쳐 인민들의 식생활을 더욱 향상시켜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중평남새온실농장과 양묘장,

공공건물과 살림집들은 건축미학적으로나 실리적견지에서 그리고 과학화수준에서 나무랄데 없다고 하시면서 인민군군인들이 또 하나의 전형을 창조하였다고, 건설기능은 좀 부족해도 애국심으로 불타는 인민군군인들이 흘린 땀방울로 이룩된 창조물이라고, 인민군대가 당이 중시하는 대상이라면 처음 해보는 건설이지만 물불을 가리지 않고 기어이 수행하고있으며 그 과정을 통하여 군인들이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단련되고 준비되였다고, 그래서 오늘의 이 성과가 더욱 소중하다고 하시며 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로동신문》2019 년 10 월 18 일부

조선로동당의 인민중시사상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인민사랑의 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선 중평남새온실농장과 양묘장 조업식이 12 월 3 일에 성대히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업식에 참석하시여 조업테프를 끊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당과 정부의 간부들, 인민군지휘성원들과 함께 중평남새온실농장을 돌아보시였다.

그이께서는 남새생산에서 량적지표도 중요하지만 기본은 영양학적지표와 맛이 더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농장에서 앞으로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최적화, 최량화를 실현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는 투쟁목표와 리상을 높이 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모든 도들에서 남새온실농장들을 건설하고 서로 경쟁하며 과학농사정형판정을 관례화하는것을 비롯하여 온실농사에서 혁명을 일으키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지리적으로 멀고 가까운 곳은 있어도 자신의 마음속에는 멀고 가까운 인민이 따로 없다고, 남새온실농장이 함경북도인민들의 식생활에 이바지한다면 더 바랄것이 없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중평남새온실농장과 같은 거창한 온실바다를 펼치여 인민의 군대로서의 위력을 만천하에 과시한 군인건설자들에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이름으로 감사를 주시였다.

*《로동신문》2019 년 12 월 4 일부

3) 거창한 대건설사업을 통이 크게 벌리시여

(1) 삼지연군(당시)을 인민의 리상도시로 건설하기 위하여

△ 4 월에 삼지연군(당시)을 찾으시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삼지연군(당시)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삼지연군(당시) 읍지구건설현장을 돌아보시면서 공사진행정형과 실태를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건설자들이 북방의 추운 겨울철날씨조건에서도 공사를 많이 진척시켰다고, 불과 몇달사이에 읍지구가 또다시 몰라보게 달라졌다고 하시면서 이런 속도, 이런 기세로 냅다 밀고나가면 당에서 구상한대로 삼지연군(당시)건설을 제기일안에 결속할수 있을것이라고, 전망이 좋다고 신심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삼지연군(당시) 읍지구에 새로 건설한 살림집에 입사한 세쌍둥이자매들의 가정을 방문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나서자란 정든 수도를 떠나 백두대지로 달려와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에 참가하였던 평양의 세쌍둥이처녀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군(당시)을 더 잘 꾸려갈 백옥같은 마음을 안고 삼지연군(당시)에 영원히 뿌리를 내린 사연을 들어주시고 정말

기특하다고, 시대가 낳은 청년들의 미덕이고 본보기이라고, 좋은 배필을 만나 가정을 이루면 자신께 꼭 편지를 쓰라고 하시며 훌륭한 결심을 하고 청춘의 자욱을 값높이 새겨가고있는 그들의 소행을 치하하시고 따뜻이 격려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어 완공단계에 이른 삼지연들쭉음료공장과 삼지연군(당시) 초급중학교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방금 돌아본 살림집도 그렇고 삼지연들쭉음료공장과 삼지연군(당시) 초급중학교도 시공을 손색없이 정말 잘하였다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군에서 모든 건설대상들을 오늘의 시대적높이에 맞게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하여 삼지연군(당시)을 교과서적인 도시, 본보기도시가 되게 꾸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날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을 또다시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장의 여러 생산현장들을 돌아보시면서 감자가공품설비설치정형과 감자가루생산정형을 비롯한 공장운영실태를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삼지연군(당시)건설지휘부와 도당, 군당의 책임일군들, 동행한 일군들에게 삼지연군(당시)꾸리기는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으려는 적대세력들과의 치렬한 계급투쟁, 정치투쟁이라고, 삼지연군(당시)건설에서의 승전포성은 우리 국가의 위력, 경제적잠재력의 과시로 된다고 다시금 강조하시면서 건설자들뿐아니라 전당, 전국을 불러일으켜 당창건 75 돐까지 삼지연군(당시)건설을 결속하여 혁명의 고향집뜨락인 삼지연군(당시)을 현대문명이 응축된 산간도시로, 남들이 흉내조차 낼수 없는 특색있는 군, 우리 나라에서 제일 잘사는 군으로 꾸려 내놓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로동신문》2019 년 4 월 4 일부

△ 10월에 삼지연군(당시)을 찾으시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2 단계 공사를 성과적으로 마감하고있는 들끓는 삼지연군(당시)안의 건설장들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몰라보게 변모된 읍전경을 바라보시며 2 단계 공사진행정형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청취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도시를 방불케 하는 읍지구의 모든 건축물들을 백두의 천연수림과 어울리면서도 현대미를 잘 살려 건설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성지에 바치는 전국의 인민들의 지극한 정성과 충성의 구슬땀으로 삼지연군(당시)의 전변의 새 력사가 씌여지고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 읍지구 여러 거리들과 구획들을 돌아보시며 건설정형과 상업봉사망들의 운영준비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삼지연군인민병원(당시)과 치과전문병원건설사업을 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삼지연군인민병원(당시) 의료집단의 실태와 준비상태를 알아보시였다.

그이께서는 삼지연군인민병원(당시)의 의료설비들은 이미 약속한대로 당에서 전적으로 맡아 책임적으로 마련해주겠다고 하시면서 현대적인 의료설비들을 다루고 운영할수 있는 실력있는 의료일군들을 잘 준비시킬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삼지연들쭉음료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장에 현대적인 생산공정이 꾸려진데 맞게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며 현존설비들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제품의 질을 더욱 높이고 대대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 백두산특산물, 량강도의 특산물인 들쭉을 원료로 하는 각종 음료와 가공제품이 온 나라 인민들이 즐겨찾는 소문난

명제품으로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삼지연군(당시)꾸리기 2단계 공사가 전반적으로 잘 마무리되여가고있다고 하시면서 삼지연군(당시) 읍지구는 볼수록 장관이라고, 말그대로 천지개벽이 일어났다고 못내 감개무량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렇듯 방대한 건설사업을 어려운 난관속에서 제기간내에 끝낸것은 우리 당의 건설부문령도의 승리이고 위대한 우리 인민이 달성한 값비싼 승리라고 하시면서 삼지연군(당시)건설자들이 당의 웅대한 대건설구상을 받들고 북방의 어려운 환경속에서 고생들이 많았다고 따뜻이 격려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력사의 가장 중대한 시기에 온갖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우리 당의 권위를 보위하고 우리 국가의 자존을 지켜 보란듯이 세상에 둘도 없는 산간도시의 훌륭한 표준, 리상적인 본보기를 창조한 전체 건설자들에게 뜨거운 감사와 축하를 보낸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삼지연군(당시)꾸리기 2단계 공사의 마무리를 잘하는데서 나서는 과업들과 주변지구, 농장들을 일신시키기 위한 3단계 공사에서 제기되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로동신문》2019년 10월 16일부

△ 삼지연군(당시) 읍지구준공식에 참석하시여

조선로동당의 웅대한 대건설구상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인민의 리상향으로 천지개벽된 삼지연군(당시) 읍지구 준공식이 12월 2일 성대히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준공식에 참석하시여 준공테프를 끊으시였다.

하늘땅을 진감하는 우렁찬 《만세!》의 함성과 함께 축포가

터져오르고 고무풍선들이 날아올라 로동당시대의 희한한 산간문화도시 삼지연군(당시) 읍지구의 하늘가를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이어 삼지연군(당시) 읍지구건설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한 216사단 건설자들의 대렬행진이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승리의 보고, 영광의 보고를 올리며 보무당당히 행진해가는 건설자들과 군중들에게 따뜻이 손저어 답례를 보내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탁월한 사상과 령도로 사회주의문명을 전면적으로 꽃피우시며 조국번영의 찬란한 새시대를 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우러러 열광의 환호를 올리고 또 올리였다.

*《로동신문》2019년 12월 3일부

(2)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 현지지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건설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공사실적과 시공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건설자들이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를 세상에 둘도 없는 해안도시로 훌륭히 완공하여 로동당시대의 투쟁본때를 힘있게 과시할 열의드높이 겨울철기간에도 세상에 없는 건설일화들을 창조하며 공사를 힘있게 내밀어 모든 건물들의 골조공사와 내외부미장작업을 거의 끝내고 새로 추가된 신설대상들도 빠른 속도로 해제끼고있을뿐아니라 원림록화도 립체적으로 진행하여 건설장전경이 몰라보게 일신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오늘 건설장을 돌아보면서 그처럼 방대한 대규모건설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있는것을 보며 커다란 고무를

받았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결코 조건과 형편이 용이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힘, 자기의 피땀으로 진정한 행복과 훌륭한 미래를 창조해가려는 조선인민의 억센 의지와 투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결과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사기간을 6 개월간 더 연장하여 다음해 태양절까지 완벽하게 내놓자고, 그리하여 다음해 해수욕계절부터는 인민들이 흠잡을데 없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를 마음껏 리용하게 하자고 하시면서 모두가 용기백배, 기세드높이 세상이 부러워할 인민의 문화휴식터, 인민의 해양공원을 꾸려나가는 보람찬 투쟁에서 새로운 위훈을 창조해나가자고 말씀하시였다.

*《로동신문》2019 년 4 월 6 일부

(3) 양덕온천문화휴양지를 로동당시대 문명창조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특색있는 인민봉사기지로 꾸리시려

△ 4 월에 건설장을 찾으시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안남도 양덕군 온천관광지구(당시)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새로 작성된 양덕온천관광지구(당시) 총배치계획도를 보시면서 공사실태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건설현장들을 구체적으로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인민군대가 맡은 료양구획, 휴양구획, 종합봉사구획, 려관구획을 비롯한 모든 건설대상들의 건물기초굴착과 기초콩크리트치기, 하부망공사가 계획대로 진척되여 대상공사의 확고한 전망이 내다보인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군인건설자들의 충천한 기세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오늘 또다시 현지료해를 해보니 양덕지구는 높은 산을 끼고있을뿐아니라 겨울철의 기온이 낮고 눈도 많이 와 스키장을 건설하는데 유리한 자연지리적조건을 가지고있다고, 건설이 한창이지만 온천용출량도 변하지 않고 온도도 매우 높다고 하시면서 이름없던 한적한 산간지대에 온천도 하고 스키도 탈수 있는 종합적인 체육문화휴식기지, 건강치료봉사기지가 일떠서게 되였다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올겨울부터 온천장과 스키장을 운영할수 있게 건설속도를 다그치는것과 함께 지금부터 운영단위에서 봉사준비를 하나하나 착실히 잘하여야 한다고, 마식령스키장을 운영하면서 얻은 경험에 토대하여 양덕스키장운영과 봉사를 더 높은 수준에서 흠잡을데없이 해나가기 위한 연구를 많이 하고 경영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도 그렇고 양덕온천관광지구(당시)건설도 그렇고 당에서 이처럼 방대하고 높은 기술적수준, 질적수준을 요구하는 대상건설을 결심할 때 제일먼저 떠오르는것은 당의 부름에 오직 알았습니다라는 대답밖에 모르는 인민군군인들이라고 하시면서 인민군대는 당의 구상과 결심을 결사관철로 받들어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 문명의 개척자로서의 위용을 남김없이 떨쳐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로동신문》2019년 4월 6일부

△ 8월에 건설장을 찾으시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양덕군 온천관광지구(당시) 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 온천관광지구(당시)

건설장의 곳곳을 돌아보시며 당에서 구상한대로 자연지대적특성을 잘 살리고 주변의 환경과 정교하게 어울리는 특색있는 관광지구가 형성되였다고 만족해하시면서 구획구분과 배치가 실용적이며 매 건물들이 건축미학적으로도 손색이 없다고 평가의 말씀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스키장과 온천휴양이 결합된 새로운 문화정서생활분야가 창조되였다고 하시면서 양덕군 온천관광지구(당시)는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건축리념이 철저히 구현된 창조물이라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한것이며 인민의 요구가 반영된것이라고, 이곳이 완공되면 많은 사람들이 즐겨찾는 인민의 문화휴양지로 될것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는 크지 않은 이런 하나하나의 창조물들마다에도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자랑스러운 면모를 새겨넣어야 한다고, 우리 인민들이 날로 변모되는 부강하고 문명한 조국의 모습을 보면서 크나큰 긍지와 애국의 마음을 더 깊이 간직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제 남은 마감공사를 질적으로 재치있게 하여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된 양덕군 온천관광지구(당시)를 인민들에게 선물하자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건설장의 전경을 바라보시며 넉달만에 와보는데 어디가 어딘지 모르게 천지개벽되였다고, 군인건설자들이 폭풍같은 기세로 한개 도시구획형성과도 같은 방대한 공사를 해제꼈다고 하시면서 인민군적으로 제일 전투력있는 이 부대에 건설을 맡기기 잘했다고, 전문건설부대 못지 않게 건설을 잘한다고, 정말 힘이 있는 부대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당이 인민군대를 믿고 못해낸 일이 없었다고 하시면서 당의 결심을 실천하는것, 당의 명령앞에 오직 한마디 《알았습니다》로 화답하는것은 우리 인민군대의 특유의 기질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당의 구상과 의도를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고 언제나 무조건성, 결사관철의 위력으로 실천해나가는 인민군대가 있기에 당의 구상은 곧 실천의 력사로 씌여져왔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는 이런 군대와 함께 혁명의 길을 개척해가는것을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긍지로 여긴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자랑이며 국가의 기둥인 인민군대가 앞으로도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라는 구호드높이 위대한 인민의 아들딸답게 조국의 수호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 인민의 충복으로서 자기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보답해나가기를 바란다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우리의 손으로, 우리식으로 창조해나갈 불같은 열의에 넘쳐 부닥치는 온갖 도전과 애로를 자력갱생정신으로 뚫고나가며 애국의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 도내인민들과 돌격대원들, 철도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건설자들과 건설에 필요한 자재보장을 맡은 일군들과 로동계급에게 정말 수고가 많다고, 오늘 건설장을 돌아보고 대단히 만족해하였다는것과 모두에게 자신의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시며 그들을 따뜻이 고무격려해주시였다.

*《로동신문》2019년 8월 31일부

△ 10월에 건설장을 찾으시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완공단계에 이른 양덕군 온천관광지구(당시)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건설지휘부 책임일군들로부터 공사진행정형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받으시고 실내온천장과 야외온천장, 스키장을 비롯하여 치료 및 료양구역들과 다기능체육문화지구를

돌아보시였다.

그이께서는 전망대에 오르시여 온천관광지구(당시)의 봉사건물들을 보시면서 정말 특색이 있다고,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다고, 봉사단위 종업원들의 살림집들도 고급한 별장같다고, 온천관광지구(당시) 주변의 농촌마을들은 농촌마을건설의 본보기가 되였다고, 이것이 조선식건설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나라가 어렵고 모든것이 부족한 속에서도 보란듯이 제힘으로 일떠세운 온천관광지구(당시)는 물질적재부이면서도 정신적재부이라고 하시면서 온천관광지구를 인민군대가 건설하였는데 건설에 동원된 부대는 싸움준비도 잘하고 건설도 멋들어지게 잘한다고, 군인건설자들이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조국의 미래와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정말 보람있는 일을 하였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번에 양덕군 온천관광지구(당시)를 개발한것처럼 전국적으로 문화관광기지들을 하나하나씩 정리하고 발전시켜 인민들이 나라의 천연자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좀 힘들어도 우리 대에 해놓으면 후대들이 그 덕을 보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양덕군 온천관광지구(당시)는 우리 당이 인민들에게 안겨주는 선물이라고 하시면서 더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고 손색없이 꾸려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전체 건설자들이 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남은 공사를 제기일안에 질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양덕군 온천관광지구(당시)를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건축물로 훌륭히 완공하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로동신문》2019년 10월 25일부

△ 11월에 건설장을 찾으시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준공을 앞둔 양덕온천문화휴양지건설장을 또다시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근로자휴양호동들과 료양호동들, 려관들과 실내온천장, 야외온천장, 종합봉사시설들과 승마공원, 스키장을 돌아보시면서 지난 10 월 23 일 양덕온천문화휴양지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신 이후 당에서 제시한 과업들을 집행한 공사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군군인건설자들이 지난번에 지적한 문제들을 바로잡으면서 건축마감공사를 섭세하게 진행하여 치료 및 료양구획과 스키장구획을 비롯한 모든 건설대상들을 질적으로 완공해가고있는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양덕온천문화휴양지는 우리 당이 인민들의 건강과 복리증진, 새로운 문화정서생활분야를 안겨주기 위해 건설하는 온천치료봉사기지이며 다기능화된 복합체육문화휴식기지라고, 사소한 부족점도 허용할수 없다고 하시며 온천문화휴양지의 완공과 그 운영관리에서 나서는 세부적인 과업들에 대해서도 일일이 지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온천문화휴양지에 건설하고있는 승마공원을 빨리 완공하여 근로자들이 이곳에 와서 스키도 타고 말도 타며 여러가지 체육문화생활을 즐기고 온천욕을 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 지구에 전망적으로 골프장도 건설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양덕온천문화휴양지의 준공기일이 박두한것만큼 봉사를 담당한 단위 당조직들과 일군들과 봉사자들이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을 지니고 봉사준비사업을 빈틈없이 책임적으로 하여 봉사활동에서 미흡한 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양덕온천문화휴양지건설지휘부에서

당에서 제시한 완공날자까지 미진된 공사를 어김없이 결속하고 준공식을 보장하기 위한 마감공사조직과 지도를 더욱 짜고들어 진행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로동신문》2019 년 11 월 15 일부

△ 양덕온천문화휴양지준공식에 참석하시여

조선로동당의 인민사랑에 의하여 세계적인 온천치료봉사기지, 체육문화휴식기지로 훌륭히 일떠선 양덕온천문화휴양지 준공식이 12 월 7 일 성대히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준공식에 참석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양덕온천문화휴양지 준공테프를 끊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양덕온천문화휴양지를 돌아보시였다.

그이께서는 당의 인민사랑이 그대로 뜨거운 샘이 되여 문명의 바다, 행복의 별천지를 펼친 양덕온천문화휴양지를 굽어보시며 예로부터 온천으로 유명한 양덕지구에 문화휴양지를 꾸려 인민들에게 안겨주시려고 그토록 마음써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을 풀어드리게 되였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인민들에게 새로운 문화정서생활분야를 안겨줄수 있게 되였다고, 우리 인민이 하루빨리 사회주의문명을 마음껏 향유하도록 하려는 당의 구상이 또 하나 실현되였다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당은 인민을 현대문명에로 이끄는 향도자, 인도자라고 하시면서 양덕온천문화휴양지의 완공은 가장 정확한 령도력과 가장 위대한 향도력으로 막아서는 온갖 도전을 맞받아 뚫고나가는 조선로동당만이 안아올수 있는 빛나는 결실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에게 새로운 온천문화, 온천문명을 안겨주게 된것도 대단히 기쁜 일이지만 이런 문명을 바로 인민군군인들의 손으로 건설한것이 더욱 기쁘다고, 일진광풍의 기상으로 수령의 명령을 결사관철하는 우리 인민군대만이 창조할수 있는 기적이라고, 인민군대가 인민을 위한 보람있는 일을 또 하나 해놓았다고, 만점짜리라고 대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군인건설자들에게 대를 두고 길이 전할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로동신문》2019 년 12 월 8 일부

(4) 강계시와 만포시건설총계획 지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자강도안의 당, 행정 및 설계기관의 책임일군들과 함께 강계시와 만포시건설총계획을 검토하시며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강계시와 만포시건설총계획도와 도시건설전망모형사판을 보시면서 도시형성계획에 대한 해설을 들으시고 강계시와 만포시를 시대적요구에 맞게 훌륭히 건설하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를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북부산간지대에 위치한 자강도의 특성에 맞게 야산지대에 단층, 소층살림집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현대적미감에 맞으면서도 깨끗하고 아담하게 꾸리며 시립공원과 동물원, 종합체육구를 비롯한 문화휴식시설들도 건물들의 류형을 다양하게 변화시키면서 자기의 멋이 두드러지게 독특하게 건설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자강도에서 생산한 건재품들을 보아주시고 색기와를 아주 잘 만들었다고 평가하시면서 전국적으로 년에 1 차씩 건재부문 전시회를 조직하여 지방들에서 건재품들을 적극적으로 개발리용하는 일대 선풍을 일으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전국도처에서 세계적수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는 들끓는 분위기에 맞게 도, 시, 군당들에서 도, 시, 군소재지들을 자기 지방의 특성이 살아나고 자기 얼굴이 나타나게 꾸리기 위한 사업을 경쟁적으로 벌려 지방도시들의 면모를 근본적으로 일신시키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는 무엇을 하나 건설하여도 오늘이 아니라 50년, 100년을 내다보면서 후세에 물려줄수 있고 오늘의 시대를 대표할수 있는 건축물이 되도록 훌륭히 건설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도소재지를 비롯한 지방도시들을 잘 꾸려 온 나라를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전변시키기 위한 투쟁을 끝장을 볼 때까지 힘차게 내밀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로동신문》2019년 6월 1일부

(5) 금강산관광지구 현지지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금강산관광지구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남조선측에서 건설한 대상들과 삼일포와 해금강, 구룡연일대를 돌아보시였다.

그이께서는 관광지구에 꾸려놓은 봉사건물들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면서 건축물들이 민족성이라는것은 전혀 찾아볼수 없고 범벅식이라고, 건물들을 무슨 피해지역의 가설막이나 격리병동처럼 들여앉혀놓았다고, 건축미학적으로 심히 락후할뿐아니라 그것마저 관리가 되지 않아 람루하기 그지없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땅에 건설하는 건축물은 마땅히 민족성이 짙은 우리 식의 건축이여야 하며 우리의 정서와 미감에 맞게 창조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시설들을 남측의 관계부문과 합의하여 싹 들어내도록 하고 금강산의 자연경관에 어울리는 현대적인 봉사시설들을 우리 식으로 새로 건설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지금 금강산이 마치 북과 남의 공유물처럼, 북남관계의 상징, 축도처럼 되여있고 북남관계가 발전하지 않으면 금강산관광도 하지 못하는것으로 되여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잘못된 인식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금강산은 피로써 쟁취한 우리의 땅이며 금강산의 절벽 하나, 나무 한그루에까지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이 깃들어있다고 하시면서 금강산관광지구의 부지를 망탕 떼여주고 문화관광지에 대한 관리를 외면하여 경관에 손해를 준데 대하여 엄하게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 조국강토에는 뛰여난 명승지가 많지만 천태만상의 자연경관을 이루고있는 금강산은 명승의 집합체로 되고있다고 하시면서 나라의 자연경치를 인민들이 한껏 즐기면서 휴식할수 있게 금강산지구에 현대적인 문화관광지를 훌륭하게 개발하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건축은 나라와 민족의 문명정도, 해당 사회의 발전정도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의 하나이라고 하시면서 현재 금강산관광지구에 널려져있는 너절한 호텔과 빠넬숙소봉사시설들을 다 헐어버리고 건물들을 민족적특성과 현대성을 결합시킨 우리 나라 건축형식의 전형성을 띠면서 발전된 형태로 훌륭히 건설하여 다른 나라 사람들이 조선의 명산을 보러 와서 조선의 건축을 보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금강산관광지구일대를 금강산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마식령스키장이 하나로 련결된 문화관광지구로

세계적인 명승지답게 잘 꾸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훌륭히 꾸려진 금강산에 남녘동포들이 오겠다면 언제든지 환영할것이지만 우리의 명산인 금강산에 대한 관광사업을 남측을 내세워 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대해 우리 사람들이 공통된 인식을 가지는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였다.

*《로동신문》2019년 10월 23일부

4. 사회주의문명건설을 다그치기 위하여

1) 교육사업에 선차적힘을 넣어

(1) 배움의 천리길학생소년궁전을 찾으시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배움의 천리길학생소년궁전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궁전일군으로부터 소년궁전 소조실들의 수용능력과 운영정형을 보고받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체육관과 여러 소조실들의 기술설계를 방의 사명과 용도에 맞게 잘하지 못한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학생소년궁전은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 대한 정서교양과 사회교육에서 대단히 중요한 과외교육교양거점이라고 하시면서 소조활동을 통하여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다양한 형태의 폭넓은 교육을 받고 자기의 재능과 소질을 활짝 꽃피울수 있도록 교육조건과 환경을 잘 갖추어주어 조국의 미래인 새 세대들을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새형의 인간으로 키워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학생소년궁전들을 모든 교육조건과 환경을 높은 수준에서 훌륭히 갖춘 종합적인 과외교육교양기지로 꾸리는것과 함께 학년별, 년령별특성에 맞게 풍부하고 폭넓은 과학기술과 예능교육을 줄수 있도록 소조운영방법과 형식을 부단히 개선하고 지도교원들의 책임성과 자질을 높이며 중앙과 지방의 모든 학생소년궁전들사이의 경험교환사업,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을 활발히 벌려 교육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국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역군으로

자라날 꿈을 안고 자기들의 창조적재능을 꽃피워가고있는 배움의 천리길학생소년궁전 소조원들의 소조활동을 보아주시고 그들의 밝은 앞날을 축복하시며 소조원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로동신문》2019 년 6 월 1 일부

(2) 제 14 차 전국교원대회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도 찍으시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제 14 차 전국교원대회참가자들에게 력사적인 서한을 보내주신데 이어 9 월 6 일 대회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온 나라 전체 교육자들의 한결같은 축원의 마음을 담아 교원들이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삼가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참가자들에게 따뜻이 답례하시며 오직 우리 당만을 믿고 교육전선을 묵묵히 지켜 후대교육사업에 순결한 량심과 헌신의 자욱을 새겨가는 교육자들에게 뜨거운 인사를 보내시였다.

그이께서는 교원들은 우리 조국의 밝은 미래를 키우는 공산주의자이며 참다운 애국자, 직업적혁명가이라고 하시면서 전례없는 규모로 진행된 이번 대회가 교육사업에서 근본적인 대혁명이 일어나는 중요한 계기로 되게 하려는 당의 의도를 잘 알고 교육부문에서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교원들과 교육일군들이 당의 주체적교육발전혁명방침관철의 직접적담당자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후대교육사업에 깨끗한 량심과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침으로써 교원혁명가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역땅의 어려운 조건에서도

민족교육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해 헌신분투하며 애국충정의 바통을 굳건히 이어가고있는 총련교육자들의 남모르는 수고를 헤아려주시며 총련교육일군대표단 성원들을 몸가까이 부르시여 특별히 따로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로동신문》2019년 9월 7일부

2) 보건부문을 추켜세우기 위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 개건하고있는 묘향산의료기구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장을 돌아보시면서 개건현대화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묘향산의료기구공장의 전경을 바라보시며 지난해에 돌아본 공장이 옳은가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공장의 내외부가 의료부문의 본보기공장답게 꾸려졌다고, 건축형식도 좋고 주변환경도 깨끗해졌다고, 공간배치도 잘하였다고, 건축미학적면에서 보나 기술적면에서 보나 나무랄데 없다고, 완전히 때벗이를 하였다고, 공장의 면모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하시며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장에서 생산한 의료기구시제품들을 하나하나 동작시켜보시면서 성능들을 세심히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들의 생명을 보호증진시키는데 절실히 필요한 의료기구를 많이 만드는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질적으로 생산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이것은 곧 인민들에 대한 관점문제이라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장에서 생산하게 되는 모든 의료기구들을 발전된 나라들에서 생산하는 설비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최신의료기구자료들을 충분히 연구하고 우리 병원들의 실정과 환자들의

체질에 맞게 설계를 잘하며 부단히 혁신적으로 갱신하여 품질이 철저히 담보된 성능높고 실용적인 의료기구들을 개발생산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전반적으로 보면 공장개건현대화공사가 당에서 구상한대로 진행되고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일부 결함들도 있다고 하시면서 건축시공을 설계와 공법의 요구대로 질적으로 하지 못하고있는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건설기능이 높은 부대를 시급히 파견하여주겠으니 그들과 함께 시공과정에 나타난 부족점들을 바로잡고 공장을 년말까지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공장, 구실을 바로하는 공장으로 훌륭하게 완공할데 대하여 지시하시였다.

*《로동신문》2019년 10월 27일부

3) 문학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1)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인민의 나라》관람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인민의 나라》가 6월 3일 5월 1일경기장에서 개막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출연자들은 아름답고 우아한 률동과 기백있는 체조, 흥취나는 민족적정서와 풍부한 예술적형상, 천변만화하는 대규모의 배경대화폭으로 공연을 펼치였다.

그이께서는 출연자들의 수고에 감사를 표하시며 손저어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사회주의문화건설에서 문학예술부문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맡고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당의 혁명적인 문예정책을 정확히 집행관철해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로동신문》2019 년 6 월 4 일부

(2) 국립교향악단의 7.27 기념음악회 관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승절에 즈음하여 국립교향악단의 7.27 기념음악회를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전시가요들과 시대의 명곡들로 구성된 교향시를 들으며 관람자들은 가렬처절한 조국해방전쟁의 준엄한 나날들을 추억하였다.

관람자들은 공연을 통하여 우리 당을 따라 불타는 애국심과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온 영광의 년대들을 감회깊이 회고하면서 사회주의조선의 새로운 영웅적투쟁사를 빛내여나갈 의지를 가다듬었다.

*《로동신문》2019 년 7 월 28 일부

(3) 조선로동당창건 74 돐 경축공연 관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10 월 10 일 당중앙위원회 본부 별관에서 조선로동당창건 74 돐 경축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관람자들은 조선로동당을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혁명의 강위력한 향도적력량으로 강화발전시키시며 존엄높은 사회주의 우리 국가의 무진막강한 국력과 위상을 만천하에 떨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다함없는 흠모와 신뢰의 정을 담아 최상최대의 경의를

드리였다.

출연자들은 창건된 첫날부터 성스러운 붉은 기폭에 인민의 존엄과 운명을 새겨안고 이 땅의 수천만 아들딸들을 한품에 안아 시대의 영웅, 력사의 창조자로 키워주며 인류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기적과 변혁의 새시대를 펼쳐가는 조선로동당의 위대성을 격조높이 칭송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따뜻이 손저어 답례를 보내시였다.

*《로동신문》2019 년 10 월 11 일부

(4) 중화인민공화국 방문공연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귀국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친선예술단을 만나시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1 월 31 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중화인민공화국방문공연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귀국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친선예술대표단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예술대표단 성원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며 중국당과 중국인민에 대한 조선로동당과 인민의 뜨거운 진정과 성의가 어린 훌륭하고 열정적인 공연활동을 진행하여 올해 조중문화교류의 첫시작을 이채롭고 의의있게 장식하고 조중친선을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승화발전시키려는 당중앙의 의도를 풍만한 공연성과로 실천한 예술대표단의 활동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예술인들이 높은 예술적기량과 재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중국방문공연을 원만히 진행함으로써 습근평총서기동지내외분과 중국공산당원들과 중국인민들에게 기쁨을 준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조중 두 나라 인민들의 정서적, 문화적뉴대를 추동하고 더욱 굳건히 다지는데 적극 이바지한 예술대표단 전체 성원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중국방문공연을 성과적으로 보장한 예술인들이 앞으로도 당정책의 적극적인 선전자, 대변자로서 당의 사상과 의지가 맥박치는 참신한 예술활동을 더욱 과감히 벌려나감으로써 당과 사회주의를 옹위하고 강력한 사회주의국가건설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며 주체음악예술발전의 핵심력량으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가리라는 크나큰 믿음을 주시면서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로동신문》2019년 2월 1일부

5. 국가방위력을 튼튼히 다지기 위하여

1)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3차 확대회의 지도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3차확대회의를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확대회의에서 조성된 복잡한 대내외형편에 대하여 분석통보하시면서 정세변화흐름과 조선혁명발전의 관건적시기의 요구에 맞게 인민군대를 비롯한 나라의 전반적무장력을 군사정치적으로 더욱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직정치적대책들과 군사적대책들을 토의결정하며 조직문제를 취급할것이라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확대회의에서 앞으로 군건설과 군사정치활동에서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갈 방향과 방도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모든 지휘성원들이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다 맡자는 인민군대의 전통적이며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구호를 더 높이 추켜들고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고 인민의 행복과 리상을 꽃피우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새로운 기적과 영웅적위훈을 창조해나감으로써 시대와 혁명이 자기앞에 부여한 성스러운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로동신문》2019년 12월 22일부

2) 조선인민군창건 71돐에 즈음하여 인민무력성 축하방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창건 71돐에

즈음하여 2월 8일 인민무력성을 축하방문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무력성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앞에서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인민무력성회의실에서 인민무력성 장령, 군관들과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 련합부대장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건군절을 맞는 그들을 뜨겁게 축하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강령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혁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적국면이 열리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이 새로운 발전단계에서 전개되는 격동적인 시기에 뜻깊은 건군절을 맞는 전군의 사랑하는 장병들과 군인가족들에게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보내시였다.

그이께서는 오늘의 뜻깊은 자리에서 조선인민군의 전체 군단, 사단, 려단장들을 다 만나고보니 전군의 모든 장병들을 만난것만 같은 심정이라고 하시면서 최고사령관이 언제나 병사들을 보고싶어하며 떨어져있어도 마음은 늘 그들과 함께 있다는 자신의 심정을 꼭 전해주기 바란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지난해에도 조국과 혁명을 위한 투쟁의 길에서 분투하고 또 분투하며 우리 인민의 전인미답의 영웅적창조투쟁을 강위력한 총대로 튼튼히 담보하고 조국의 미래를 보란듯이 개척해나갈수 있는 공고한 토대를 마련한 우리 혁명무력의 공헌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 돐과 조선인민군창건 70 돐을 계기로 진행된 장엄한 열병식들을 통하여 강대하고 존엄높은 우리 당과 국가의 위상을 만방에 떨치고 사회주의건설의 전구마다에서 위훈창조의 불꽃을 날림으로써 우리 인민들에게 사회주의의 밝은 앞날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더해준

인민군장병들에게 다시금 전투적인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올해에 인민군대가 우리 당의 혁명투쟁사와 건군사에 전례없는 대비약, 대혁신을 이룩함으로써 시대와 혁명이 부여한 력사적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앞에 나서는 전투적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새로운 로정도를 만들려는 당의 결심과 의지는 확고부동하며 우리 조국의 힘찬 전진을 가로막을 힘은 없다고 하시면서 전군이 당중앙의 두리에 굳게 단결하여 주체혁명위업완성을 위해 힘차게 싸워나가자고 호소하시였다.

*《로동신문》2019년 2월 9일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창건 71돐에 즈음하여 2월 8일 조선인민군 전체 대련합부대, 련합부대장들과 함께 공훈국가합창단의 경축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영웅적조선인민군의 불패의 기상과 위용을 과시하고 당중앙과 사상도 숨결도 발걸음도 같이하며 사회주의의 한길로 굴함없이 전진해갈 천만군민의 불타는 애국충정과 당에 대한 열화같은 신뢰심이 뜨겁게 굽이치는 공연은 장중하고도 풍만한 정서와 세련된 예술적형상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재청에 의하여 녀성3중창과 남성합창《우리의 국기》가 다시 연주되자 장내는 무한한 격동과 흥분에 휩싸였으며 공연은 최절정을 이루었다.

공연이 끝나자 또다시 《만세!》의 환호성이 울려퍼지는 장내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우러러 터치는 관람자들의 심장의 웨침으로 하여 충성의 대하마냥 설레이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답례를 보내시고 공연성과를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훈국가합창단 예술인들이 앞으로도 혁명적인 예술활동을 더욱 힘있게 벌림으로써 문예전선의 전초병으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로동신문》 2019년 2월 9일부

3) 조선인민군 제5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 지도

조선인민군 제5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가 3월 25일과 26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대회참가자들에게 손저어 답례하시며 조국보위와 사회주의대건설장마다에서 시대와 혁명이 부여한 성스러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가고있는 전군의 장병들에게 전투적인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개회사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당과 혁명, 조국보위의 전초선을 지켜선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들의 혁명적열의속에 이번 대회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의 중대중시사상과 방침을 철저히 구현하여 중대강화의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하는 의의깊은 계기로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고 대회개회를 선언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토론들을 주의깊게 들어주시며 중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얻은 성과와 경험을 가지고 좋은 토론을 한 지휘관들을 고무격려해주시고 그들의 특출한 공로와 헌신적인 노력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강령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혁명무력의 최정예화, 강군화를 다그치기 위한 불멸의 대강을 받아안은 무한한 감격과 환희에 넘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리였다.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이 채택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페회사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번에 전군의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중대강화를 위한 투쟁에서의 성과와 경험, 교훈들을 분석총화하고 실질적인 대책들을 토의하였다고 하시면서 이번 대회가 참가자들의 앙양된 정치적열의속에 성과적으로 진행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로동신문》2019년 3월 27일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3월 27일 5월 1일경기장에서 조선인민군 제5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모범적인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들을 특별히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 불러주시고 또다시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로동신문》2019년 3월 28일부

4)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찾으시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6돐에 즈음하여 7월 27일 오전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앞에 꽃송이를 진정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따라 비극적인 년대에 조국을

존망의 위기에서 구원한 참전렬사들의 불멸의 공훈은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국의 자유독립과 인민의 행복을 수호하기 위한 성전에 고귀한 생명을 바친 인민군렬사들의 위대한 넋이 영원한 명예의 단상에서 영생할것을 기원하시며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로동신문》2019년 7월 28일부

6.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을 확대강화하기 위하여

1)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친선단결을 위하여

(1)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시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인 습근평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1 월 7 일부터 10 일까지의 기간에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모시고 리설주녀사께서 동행하였다.

그이께서 타신 전용렬차가 현지시간으로 7 일 21 시 30 분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경도시 단동에 도착하였다.

그이께서는 리설주녀사와 함께 렬차에서 내리시여 마중나온 중국측 간부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렬차에 오르시여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련락부장 송도동지와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나누시였다.

현지시간으로 8 일 11 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도 베이징에 도착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마중나온 중국의 당과 정부간부들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시고 숙소인 낚시터국빈관으로 향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8 일 오후 인민대회당에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인 습근평동지와 상봉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와 습근평동지는 새해 정초 또다시 상봉한 기쁨을 금치 못하시며 반갑게 굳은 악수를 나누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와 리설주녀사께서는 습근평동지와 팽려원녀사와 함께 두 나라 국기를 배경으로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중화인민공화국방문을 환영하는 의식이 인민대회당에서 성대히 거행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사이의 회담이 환영의식에 이어 인민대회당에서 진행되였다.

조중 두 당, 두 나라 최고령도자동지들께서는 동지적이며 진지하고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다시금 인사를 서로 나누시며 조중 두 당, 두 나라사이의 친선과 단결, 교류와 협조를 시대적요구에 맞게 가일층 강화발전시킬데 대하여서와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국제 및 지역문제 특히 조선반도정세관리와 비핵화협상과정을 공동으로 연구조종해나가는 문제와 관련하여 심도있고 솔직한 의사소통을 진행하였으며 대외관계분야에서 두 나라 당과 정부가 견지하고있는 자주적립장들에 대하여 호상 리해와 지지, 련대성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새해 정초부터 바쁜 일정을 모두 미루고 따뜻이 초청하여주고 열정적으로 성심성의를 다해 환대해준 습근평총서기동지와 중국당과 정부의 친근한 동지들에게 사의를 표하시고 조선당과 정부, 전체 조선인민이 보내는 훌륭한 축원의 인사를 전하시였다.

습근평동지는 중국당과 정부, 중국인민을 대표하여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중화인민공화국방문을 다시한번 열렬히 환영한다고 하면서 **김정은**동지께서 2019 년 새해에 즈음하여 중국을 방문하신것은 시기적으로 볼 때 매우 특수하고 중대한 의의를 가지며 중조친선관계를 중시하고 중국당과 인민에 대한 깊은 신뢰를 보여주는것으로 된다고

말하였다.

쌍방은 또한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국제 및 지역문제에 대하여 깊이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쌍방은 조선반도정세와 관련한 두 나라 최고령도자동지들사이의 밀접한 의사소통과 솔직한 의견교환, 조률을 통하여 유익한 정세발전을 이끌어내고 추동하여 쌍방의 리익을 수호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면서 중요하고도 관건적인 시기에 들어선 조선반도정세를 옳게 관리하여 국제사회와 반도를 둘러싼 각측의 리해관계에 부합되게 조선반도핵문제의 궁극적인 평화적해결립장을 계속 견지할데 대하여 일치하게 동의하였다.

조중 두 당, 두 나라 최고령도자동지들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사이의 외교관계설정 70 돐이 되는 새해에 정치, 경제, 군사, 문화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고위급호상래왕의 전통을 견지하고 확대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새로운 계획들에 대하여 합의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습근평동지가 편리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식방문하실것을 초청하시였으며 습근평동지는 초청을 쾌히 수락하고 그에 대한 계획을 통보하였다.

회담은 시종 따뜻하고 동지적이며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중국방문을 환영하여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인 습근평동지가 8 일 저녁 인민대회당에서 성대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서는 습근평동지가 축하연설을 하였으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답례연설을 하시였다.

조중 두 당, 두 나라 최고령도자동지들의 훌륭한 연설은 참가자들로 하여금 격동된 심정으로 2018 년 조중친선의 잊지 못할 나날들을 되새겨보게 하였으며 새해에 보다 밝고 아름다울 두 나라 관계의 미래를

확신하게 하였다.

연회는 시종일관 친선과 우애의 정 넘치는 따뜻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연회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력사적인 중국방문을 환영하여 중국예술인들이 특별히 준비한 예술공연이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와 리설주녀사께서는 습근평동지, 팽려원녀사와 함께 무대에 오르시여 감사를 표하시고 출연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9 일 오전 수행간부들, 수행원들과 함께 베이징동인당주식유한공사 제약분공장을 참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제약공정들을 참관하시며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을 보시였다.

그이께서는 생산현장을 돌아보시면서 진취적이고 완강한 노력으로 생산과 기술제고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하며 훌륭한 발전의 길을 걸어온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면서 앞으로 기업경영에서 더 큰 성공이 있기를 축원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습근평동지와 1 월 9 일 베이징호텔에서 또다시 상봉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는 습근평동지와 팽려원녀사가 마련한 오찬을 함께 하시며 화기롭고 단란한 분위기속에서 즐거운 담소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습근평동지가 또다시 특색있는 장소에서 특색있는 분위기의 오찬을 성의있게 마련하고 초대하여준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오찬을 마치신 후 습근평동지와 작별인사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현지시간으로 9 일 15 시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력사적인 방문을 성과적으로 마치시고 베이징을 출발하시여 10일 15시 평양역에 도착하시였다.

*《로동신문》2019년 1월 10일부

영접나온 간부들은 력사적인 중화인민공화국방문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몸성히 돌아오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가장 열렬하고 뜨거운 축하의 인사를 삼가 올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간부들과 악수를 나누시고 사랑하는 전체 조국인민들에게 따뜻한 귀국인사를 보내시였다.

*《로동신문》2019년 1월 11일부

(2)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를 평양에 초청하시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방문하기 위해 6월 20일 전용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습근평동지를 맞이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리설주녀사와 함께 비행장에 나오시였다.

12시,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와 감격적인 상봉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올해 정초의 뜻깊은 만남에 이어 습근평동지와 160여일만에 평양에서 또다시 상봉하게 된 기쁨을 금치 못하시면서 두손을 뜨겁게 잡으시고 정깊은 인사를 나누시였다.

습근평동지는 고대하던 평양방문이 이루어진 소감을 피력하면서 조선인민이 이렇듯 성대하게 환영해주는데 대하여 충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시하였다.

《조중친선》, 《환영합니다》의 환호가 울려퍼지는 연도는 사회주의한길에서 굳게 손잡고 고락을 함께 하여온 중국인민에 대한 우의의 정과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리설주녀사와 함께 습근평동지와 팽려원녀사를 숙소로 직접 안내하시고 담소를 나누시였다.

*《로동신문》2019 년 6 월 21 일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의 숙소를 방문하시고 습근평동지와 팽려원녀사를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시였다.

조중 두 나라 최고령도자동지들과 녀사들께서는 따뜻한 인사를 나누신 다음 숙소의 정원에서 함께 산책을 하시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 친교를 두터이 하시였다.

최고령도자동지들께서는 각기 자기 나라의 주요대내외정책적문제들에 대하여 소개하시고 서로의 관심사로 되는 국내 및 국제문제들에 대한 건설적인 의견들을 교환하시면서 깊이있는 담화를 하시였다.

조중최고령도자동지들께서는 조중외교관계설정 70 돐을 맞는 올해를 더욱 뜻깊게 장식하고 조중친선관계에서 보다 큰 만족감을 가질수 있도록 협동을 강화해나가기 위한 일련의 계획들과 조선반도정세를 긍정적으로 추동해나가기 위한 토의를 계속하시였다.

이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와 리설주녀사께서는 습근평동지와 팽려원녀사를 금수산영빈관의 장미원에 특별히 마련한 오찬장으로 안내하시고 격의없이 한집안식구처럼 다정한 분위기속에 마주앉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와 습근평동지께서는 1 년 남짓한 기간에 5 차례에 달하는 상봉을 통하여 심도있는 의사소통을 하고

훌륭하고 유익한 담화들을 진행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리해를 깊이 하고 중요한 문제들에서 견해일치를 이룩하였으며 동지적신뢰를 두터이 하고 남다른 친분관계를 맺은데 대하여 언급하시고 앞으로도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두 당, 두 나라 친선관계를 훌륭히 계승하고 빛내여나갈 의지를 피력하시였다.

습근평동지와 팽려원녀사는 평양방문기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와 리설주녀사가 성의를 다해 극진히 환대하여주고 열정적이고 특별한 영접의례행사들을 성심성의껏 조직하여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였다.

오찬은 시종 친근하고 우애의 정이 넘쳐흐르는 화목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로동신문》2019년 6월 21일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6월 20일 오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와 회담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리설주녀사와 함께 금수산영빈관을 방문하시여 습근평동지와 팽려원녀사와 따뜻한 인사를 나누시고 단란한 가정적분위기속에서 환담을 하신 다음 두 나라 국기를 배경으로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중외교관계설정 70돐을 맞이하는 올해에 습근평동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한데 대하여 열렬히 환영하시고 이번 방문이 조중친선의 불변성과 불패성을 온 세계에 과시하는 결정적계기로 되며 새로운 활력기에 들어선 조중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를 더욱 공고발전시켜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습근평동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또다시 상봉하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김정은**동지와 조선의 당과 정부의 지도간부들, 무력기관의 간부들 그리고 평양시의 각계층 군중들이 따뜻이 맞이해주고 열광적으로 환영해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시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와 습근평동지께서는 호상 자기 나라의 형편과 사회주의건설위업을 전진시키기 위한 두 당, 두 나라 인민들의 투쟁에서 이룩된 성과들에 대하여 통보하시고 그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명하시였다.

조중 두 당, 두 나라 최고령도자동지들께서는 전통적인 조중친선협조관계를 시대적요구에 맞게 계속 활력있게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두 나라 당과 정부의 시종일관한 립장이며 두 나라 인민들의 지향과 념원, 근본리익에 전적으로 부합된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조중외교관계설정 70 돐을 더더욱 의의깊게 맞이하기 위한 훌륭한 계획들을 제의하시고 의견을 나누시였다.

쌍방은 또한 조중 두 당과 두 나라사이의 전략적의사소통을 긴밀히 하고 호상 리해와 신뢰를 두터이 하며 고위급래왕의 전통을 유지하고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를 심화시켜나가기 위하여 공동으로 적극 노력할데 대하여 합의하였다.

조중최고령도자동지들께서는 조선반도정세를 비롯한 중대한 국제 및 지역문제들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을 진행하시고 지금과 같이 국제 및 지역정세에서 심각하고 복잡한 변화가 일어나는 환경속에서 조중 두 당, 두 나라사이의 관계를 깊이있게 더욱 발전시키는것은 두 나라의 공동의 리익에 부합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에 유리하다고 평가하시였다.

회담은 동지적이며 진지하고 솔직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으며 론의된 문제들에서 공통된 인식을 이룩하였다.

*《로동신문》2019 년 6 월 21 일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6 월 20 일 오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만나시고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성원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촬영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각별한 친근감을 안고 당중앙위원회

본부를 찾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동지를 환영하시면서 습근평동지와 동지적우의가 넘치는 굳은 악수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와 리설주녀사, 습근평동지와 팽려원녀사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성원들과 함께 당중앙위원회청사를 배경으로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여 조중 두 당력사에 길이 전할 불멸의 화폭을 남기시였다.

*《로동신문》2019년 6월 21일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와 팽려원녀사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방문을 환영하여 6월 20일 저녁 성대한 연회를 마련하시였다.

연회는 시종 따뜻하고 화기로운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로동신문》2019년 6월 21일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와 함께 6월 20일 저녁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불패의 사회주의》를 관람하시였다.

세기와 세대를 이어 지켜온 사회주의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을 간직하고 영원히 사회주의와 운명을 함께 할 조선인민의 의지를 아름답고 우아한 률동과 기백넘친 체조, 천변만화하는 대규모의 배경대로 보여주는 공연은 관람자들의 심금을 울리였다.

조중 두 나라 인민들이 피로써 전취한 귀중한 재부이며 공동의 위업인 사회주의의 필승불패성을 과시한 공연은 관람자들의 아낌없는 절찬을 받았다.

공연이 끝나자 또다시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이 장내를 진감하고 축포가 터져올라 친선의 밤을 황홀하게 장식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습근평동지와 함께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뜨거운 답례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는 습근평동지, 팽려원녀사와 함께 무대로 내려가시여 공연성과를 축하하시였다.

*《로동신문》2019년 6월 21일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방문하고있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가 6월 21일 우의탑에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 우의탑에 나오시여 습근평동지와 팽려원녀사를 맞이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와 습근평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조선인민과 어깨겯고 제국주의무력침공을 물리치기 위한 성전에서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싸운 중국인민지원군 렬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하시였다.

*《로동신문》2019년 6월 21일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방문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가 방문일정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6월 21일 오후 전용기로 평양을 출발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리설주녀사와 함께 습근평동지와 팽려원녀사를 평양국제비행장에서 환송하시였다.

이날 습근평동지와 팽려원녀사를 태운 차가 숙소를 떠나 평양국제비행장에 이르는 연도에서 평양시민들이 오랜 력사적뿌리를 가진 조중친선의 화원을 더욱 아름답게 장식하고 두 나라 관계발전사에 소중한 추억을 남긴 형제적린방의 친근한 벗들을 두터운 우의의 정을 담아 열렬히 환송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와 습근평동지는 위대한 새시대의 조중친선을 두 당, 두 나라 인민들의 념원에 맞게 끊임없이 개화발전시켜 나갈것을 약속하시며 작별의 굳은 악수를 나누시였다.

습근평동지와 팽려원녀사는 수도시민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며 전용기에 올랐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리설주녀사와 함께 중국인민의 친선의 사절들을 태운 비행기를 향하여 오래도록 손저어주시였다.

*《로동신문》2019년 6월 22일부

2) 웰남사회주의공화국을 공식친선방문하시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3월 1일 오후 웰남사회주의공화국 인민회의 의장 웬 티 낌 응언동지와 상봉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웰남사회주의공화국 인민회의청사를 방문하시여 웬 티 낌 응언동지와 따뜻한 인사를 나누시였다.

그이께서는 웰남사회주의공화국 인민회의 의장 웬 티 낌 응언동지와 기념촬영을 하시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와 웬 티 낌 응언동지께서는 담화에 참가한 두 나라 당과 정부간부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로동신문》2019년 3월 2일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3월 1일 오후 주석부에서 웰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며 웰남사회주의공화국 주석이신 웬 푸 쫑동지와 상봉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웬 푸 쫑동지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고 뜨겁게 포옹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환영하는 공식영접의식이 주석부 광장에서 진행되였다.

*《로동신문》2019년 3월 2일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와 웰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며 웰남사회주의공화국 주석이신 웬 푸 쫑동지사이의 회담이 3월 1일 주석부에서 진행되였다.

회담에서는 자기 나라의 정치경제형편들이 호상 통보되고 두 당,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여러 분야에 걸쳐 더욱 확대발전시킬데 대해서와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웰남사회주의공화국을 처음으로 방문하여 웬 푸 쫑총비서동지와 상봉하고 웰남동지들과 면목을 익히게 되여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웰남당과 정부와 인민이 극진히 맞아주고 열렬히 환대해주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선대수령들의 뜻을 받들어 피로써 맺어진 두 나라, 두 당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대를 이어 계승해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일관한 립장이라고 하시면서 당적, 정부적래왕을 활발히 벌리며 경제, 과학기술, 국방, 체육문화예술, 출판보도부문 등 모든 분야에서 협조와 교류를 정상화하고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웰남당과 정부가 제 2 차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의 성과적개최를 위하여 적극적이고 진심어린 지지와 훌륭한 방조를 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시였다.

웬 푸 쫑동지는 웰남당과 국가와 인민을 대표하여 **김정은**위원장동지의 웰남방문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하면서 이번 방문은 두 당, 두 나라사이의 관계발전에서 리정표적인 사변으로 된다고 말하였다.

웬 푸 쫑동지는 제 2 차 조미수뇌상봉장소로 하노이를 선택한것은 두 나라사이의 신뢰를 보여주는것이라고 하면서 회담에서 발현된 조선과 미국의 건설적이며 적극적인 립장을 높이 평가하였다.

회담은 시종 동지적이며 허심탄회하고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로동신문》2019 년 3 월 2 일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3 월 1 일 오후 웰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수상 웬 쑤언 푹동지와 상봉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웬 쑤언 푹동지는 홀에 전시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영상사진문헌들을 보여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웬 쑤언 푹동지와 기념사진을 찍으시고 친선적인 담화를 나누시였다.

*《로동신문》2019 년 3 월 2 일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웰남사회주의공화국방문을 환영하여 웰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며 웰남사회주의공화국 주석이신 웬 푸 쫑동지가 3 월 1 일 국제회의쎈터에서 성대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서는 웬 푸 쫑동지가 축하연설을 하였으며 이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답례연설을 하시였다.

연회는 조선웰남친선의 정이 뜨겁게 흘러넘치는 즐겁고 단란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연회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웰남방문을 환영하여 웰남예술인들이 특별히 준비한 다채로운 예술공연이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웬 푸 쫑동지와 함께 무대에 나가시여 성의있고 특색있는 공연을 진행한 출연자들에게 감사를 표하시고 그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웰남당과 정부의 진정어린 따뜻한 환대에 다시한번 사의를 표하시고 웬 푸 쫑동지와 뜨거운 작별의 인사를 나누시였다.

*《로동신문》2019 년 3 월 2 일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3 월 2 일 호지명주석의 묘에 화환을 진정하시였다.

화환의 댕기에는 《호지명주석을 추모하여》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호지명주석을 추모하여 묵상하시였다.

*《로동신문》2019년 3월 3일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영웅렬사추모비에 화환을 진정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영웅렬사추모비에 화환을 진정하시고 묵상하시였다.

화환의 댕기에는 《영웅렬사들을 추모하여》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로동신문》2019년 3월 3일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윁남사회주의공화국에 대한 공식친선방문을 성과적으로 끝마치시고 3월 2일 하노이시를 출발하시여 3월 5일 전용렬차로 조국에 도착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마중나온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간부들과 일일이 악수하시며 인사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환영군중들의 열광적인 환호에 답례하시며 사랑하는 전체 인민들에게 따뜻한 귀국인사를 보내시였다.

*《로동신문》2019년 3월 5일부

3) 로씨야련방과의 친선단결을 위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련방을 방문하시기 위하여 4월 24일 새벽 전용렬차로 출발하시여 그날 로씨야련방 울라지보스또크시에 도착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역전광장에 나오시자 로씨야련방무력 륙해공군명예위병대 대장이 영접보고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로씨야련방무력 륙해공군명예위병대를 사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영접나온 중앙과 지방의 간부들과 인사를 나누시고 숙소로 향하시였다.

*《로동신문》2019년 4월 25일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4월 25일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각하와 상봉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뿌찐대통령과 감격적인 첫 상봉을 하시고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였다.

뿌찐대통령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뿌리깊은 두 나라 친선의 강화발전을 위해 로씨야련방방문의 첫 자욱을 새기신데 대하여 열렬히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뿌찐대통령이 바쁜 정치일정속에서도 시간을 내여 수도로부터 멀리 떨어진 변강도시에까지 찾아와 친절히 맞이해준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와 뿌찐대통령각하는 두 나라 국기를 배경으로 뜻깊은 기념촬영을 하시고 각기 두 나라 지도간부들과 인사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뿌찐대통령과 따뜻한 담소를 나누시며 회담장으로 향하시였다.

조로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께서는 회담장에 세워져있는 두 나라 국기들을 배경으로 또다시 뜻깊은 기념촬영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와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각하사이의 단독회담이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와 뿌찐대통령각하는 친선적이고 허심탄회한 분위기속에서 건설적인 담화를 나누시였다.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께서는 각기 자기 나라의 형편을 통보하시고 호상 리해와 신뢰, 친선과 협조를 더욱 증진시키고 새 세기를 지향한 조로친선관계의 발전을 추동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조치들에 대하여

합의하시였으며 당면한 협조문제들을 진지하게 토의하시고 만족한 견해일치를 보시였다.

또한 국가건설과정에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을 교환하시였으며 조선반도정세와 국제관계분야에서 나서는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서로의 견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정세를 관리해나가기 위한 솔직하고 기탄없는 의견을 나누시였다.

조로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께서는 이번 상봉과 회담이 오랜 친선의 력사와 전통을 가지고있는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를 보다 공고하고 건전하게 발전시키며 제2차 조미수뇌회담이후 불안정한 조선반도정세를 전략적으로 유지관리해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유익한 계기로 되였다는데 대하여 일치하게 평가하였다.

담화는 격의없는 친근한 감정속에 오랜 시간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와 뿌찐대통령각하는 력사적인 첫 상봉을 통하여 훌륭한 친분관계를 쌓으시고 전략적이며 전통적인 조로친선의 뉴대를 일층 강화하시였다.

*《로동신문》2019년 4월 26일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4월 25일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각하와 회담하시였다.

회담에서는 여러 분야에서 쌍무적협조를 가일층 확대발전시켜나갈데 대하여 토의되였다.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께서는 최고위급상봉과 접촉을 포함한 고위급래왕을 강화하며 두 나라 정부와 국회, 지역, 단체들사이의 협력과 교류, 협조를 다양한 형식으로 발전시켜나갈데 대하여 론의하시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앞으로 서로의 리해와 뉴대를 더 밀접히 해나가며 지역의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전략적인 협동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뿌찐대통령이 편리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할것을 초청하시였으며 초청은 쾌히 수락되였다.

쌍방은 호상 관심사로 되고있는 중요문제들에 대하여 신뢰적이며 우호적인 분위기속에서 심도있는 대화를 진행하였다.

*《로동신문》2019년 4월 26일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환영하여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각하께서 4월 25일 성대한 연회를 차리였다.

연회는 시종 친선의 정이 뜨겁게 흘러넘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연회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로씨야방문을 환영하여 로씨야예술인들이 성의껏 준비한 예술공연이 있었다.

출연자들은 열정적이며 진정에 넘친 공연을 통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에 대한 로씨야인민의 환대의 뜻을 표시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와 뿌찐대통령각하는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 출연자들에게 꽃바구니를 전하시고 감사의 뜻을 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친선적인 로씨야의 벗들이 열렬하고도 따뜻한 환대를 베풀어준데 대하여 다시한번 깊은 사의를 표하시고 뿌찐대통령각하와 새로운 상봉을 약속하시며 작별의 뜨거운 인사를 나누시였다.

*《로동신문》2019년 4월 26일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4월 26일 태평양함대 전투영광기념비에 화환을 진정하시였다.

기념비앞에는 로씨야련방무력 륙해공군명예위병대와 군악대가 정렬해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태평양함대 전투영광기념비에 화환을 진정하시고 묵상하시였다.

화환진정이 있은 다음 애국가가 주악되고 명예위병대의 분렬행진이 진행되였다.

*《로동신문》2019년 4월 27일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4월 26일 연해변강장관 올레그 꼬줴먀꼬가 마련한 오찬에 초대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위하여 연해변강장관 올레그 꼬줴먀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2002년 8월 원동지역을 방문하시던 나날에 몸소 다녀가신 울라지보스또크시내의 《레스나야 자임까》식당에서 뜻깊은 오찬을 마련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도착하시자 화려한 민족의상을 한 아름다운 로씨야녀성들이 전통적인 풍습대로 빵과 소금을 올리며 환영의 인사를 드리였다.

그이께서는 식당정문에 모셔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적현판을 보시면서 형제적로씨야의 연해변강벗들이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소중한 추억을 정히 간직하고 오늘도 길이 전해가고있는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을 식당에 모시였던 잊지 못할 그날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며 감격을 금치 못하는 연해변강일군들과 따뜻한 담화를 나누시고 《레스나야 자임까》식당을 배경으로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오찬은 따뜻한 친선의 정이 넘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로동신문》2019년 4월 27일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로씨야련방에 대한 력사적인 방문을 성과적으로 마치시고 4월 26일 로씨야련방 울라지보스또크시를 출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환송하는 의식이 울라지보스또크역전광장에서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뿌찐대통령각하와 로씨야정부와 인민의 각별한 관심과 극진한 환대속에 로씨야련방에 대한 방문을 만족스럽게 마치고 훌륭한 인상과 친선의 정을 안고 귀국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충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타신 전용렬차는 형제적이며 친근한 로씨야벗들의 뜨거운 바래움을 받으며 울라지보스또크역을 출발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4 월 27 일 새벽 전용렬차로 귀국하시여 마중나온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간부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환영군중들의 열광적인 환호에 답례하시며 사랑하는 전체 인민들에게 따뜻한 귀국인사를 보내시였다.

*《로동신문》2019 년 4 월 27 일부

4) 미합중국대통령과 두차례 상봉하시여

(1) 첫번째상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2 월 27 일 현지시간으로 18 시 30 분 미합중국 대통령 도날드 제이. 트럼프와 상봉하시고 단독환담과 만찬을 함께 하시였다.

대결과 반목의 악순환을 끝장내고 새롭게 도래한 평화번영의 시대에 부응하려는 조미최고수뇌분들의 드높은 열망과 진취적인 노력, 비상한 결단에 의하여 력사적인 제 2 차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이 웰남 하노이에서 시작되였다.

조선반도와 지역,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크게 기여할 력사적인 제 2 차 조미수뇌상봉을 앞두고 전세계의 이목이 하노이로 집중되고있는

가운데 조미 두 나라 최고수뇌분들의 력사적인 두번째 상봉과 단독환담, 만찬이 이루어졌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체류하시는 《멜리아》호텔앞에는 이 세기적인 만남을 취재하고 지켜보기 위해 모여든 기자들과 하노이시민들, 관광객들로 북적이며 인파를 이루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전용차를 타시고 경호차량들의 호위를 받으시며 미합중국 대통령과의 상봉장소인 《메트로뽈》호텔에 도착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미합중국 대통령 도날드 제이. 트럼프와 8개월만에 또다시 상봉하시고 굳은 악수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트럼프대통령과 두 나라 국기를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시였다.

지난해 싱가포르수뇌회담과정과 그 이후 여러차례의 친서교환을 비롯한 계기들을 통하여 친분이 두터워지신 조미최고수뇌분들께서는 반갑게 인사하시며 덕담을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불신과 오해, 적대적인 눈초리들과 낡은 관행이 우리가 가는 길을 막으려고 하였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다 깨버리고 극복하며 다시 마주 걸어 260일만에 하노이까지 왔으며 이 시간은 그 어느때보다 많은 고민과 노력, 인내가 필요했던 기간이였다고 하시면서 이번 회담에서 모두가 반기는 훌륭한 결과가 만들어질것이라고, 최선을 다할것이라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트럼프대통령은 **김정은**위원장을 다시 만나게 되여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기쁘다고 하면서 우리는 매우 훌륭한 관계를 맺고있으며 이번 회담이 대단히 성공적인 회담이 될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하였다.

조미최고수뇌분들께서는 이어 단독환담을 진행하시면서 허심탄회하고 솔직한 대화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트럼프대통령과 단독환담을 마치신

후 친교만찬을 함께 하시였다.

조미최고수뇌분들을 모시고 두 나라 인사들이 원탁에 친근하게 둘러앉아 화기로운 분위기속에서 진행된 만찬에서는 싱가포르수뇌상봉이후 두 나라 관계에서 상당한 진전을 가져온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 하노이수뇌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는 전세계의 관심과 기대에 맞게 이번 회담에서 포괄적이며 획기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진지하고 심도있는 의견들을 나누었다.

*《로동신문》2019년 2월 28일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2월 28일 미합중국 대통령 도날드 제이. 트럼프와 또다시 상봉하시고 회담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현지시간으로 9시부터 조미수뇌회담장소인 하노이시의 《메트로뽈》호텔에서 미합중국 대통령 도날드 제이. 트럼프와 또다시 상봉하시고 단독회담과 전원회담을 진행하시였다.

조미최고수뇌분들께서는 단독회담과 전원회담에서 싱가포르공동성명을 리행하기 위한 력사적인 로정에서 괄목할만 한 전진이 이루어졌다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고 이에 토대하여 조미관계개선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는데서 나서는 실천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건설적이고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을 하시였다.

회담들에서는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를 추동하며 완전한 비핵화를 위하여 쌍방이 기울인 노력과 주동적인 조치들이 서로의 신뢰를 도모하고 조미 두 나라사이에 수십여년간 지속되여온 불신과 적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해나가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는데 대하여 인식을 같이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와 트럼프대통령은 싱가포르공동성명에서 제시한 공동의 목표들을 실행해나가기 위하여 현 단계에서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문제들에 대한 서로의 견해를 청취하시고 그 방도를 진지하게 론의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와 트럼프대통령은 70 여년의 적대관계속에서 쌓인 반목과 대결의 장벽이 높고 조미관계의 새로운 력사를 열어나가는 려정에서 피치 못할 난관과 곡절들이 있지만 서로 손을 굳게 잡고 지혜와 인내를 발휘하여 함께 헤쳐나간다면 능히 두 나라 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에 맞게 조미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나갈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조미최고수뇌분들께서는 두번째로 되는 하노이에서의 상봉이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더욱 두터이하고 두 나라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킬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고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와 트럼프대통령은 조선반도비핵화와 조미관계의 획기적발전을 위하여 앞으로도 긴밀히 련계해나가며 하노이수뇌회담에서 론의된 문제해결을 위한 생산적인 대화들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트럼프대통령이 먼길을 오고가며 이번 상봉과 회담의 성과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시고 새로운 상봉을 약속하시며 작별인사를 나누시였다.

*《로동신문》2019 년 3 월 1 일부

(2) 두번째상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도날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이 친서를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트럼프대통령의 친서를 읽어보시고 훌륭한 내용이 담겨있다고 하시면서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트럼프대통령의 정치적판단능력과 남다른 용기에 사의를 표한다고 하시면서 흥미로운 내용을 심중히 생각해볼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로동신문》2019 년 6 월 23 일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6 월 30 일 오후 도날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의 제의에 따라 판문점에서 력사적인 상봉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트럼프대통령이 6 월 29 일부터 30 일까지 남조선을 방문하는 기회에 비무장지대에서 **김정은**국무위원장과 만나고싶다는 의사를 전해온데 대하여 수락하시고 판문점 남측지역에 나가시여 트럼프대통령과 전격적으로 상봉하시였다.

30 일 오후 전세계가 주목하며 지켜보는 가운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판문각을 나서시여 도날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과 판문점분리선앞에서 력사적인 상봉을 하시였다.

1953 년 정전협정이후 66 년만에 조미 두 나라 최고수뇌분들께서 분단의 상징이였던 판문점에서 서로 손을 마주잡고 력사적인 악수를 하는 놀라운 현실이 펼쳐졌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트럼프대통령과 120 여일만에 또다시 만난데 대하여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고 대통령을 안내하여 판문점 조선측 지역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와 트럼프대통령이 판문점 조선측 지역의 판문각앞에까지 오시여 다시한번 손을 잡으심으로써 미국현직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공화국령토를 밟는 력사적인 순간이 기록되였다.

조미 두 나라 최고수뇌분들께서는 환담을 나누시며 회담장인 판문점 남측지역의 《자유의 집》으로 향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문재인대통령이 《자유의 집》앞에서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문재인대통령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였다.

적대와 대결의 산물인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에서 북남조선과 미국의 최고수뇌들이 분단의 선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만나는 력사적인 장면은 전세계를 커다란 충격에 휩싸이게 하였으며 오랜 세월 불신과 오해, 갈등과 반목의 력사를 간직한 판문점에서 화해와 평화의 새로운 력사가 시작되였음을 보여주었다.

이어 조미최고수뇌분들의 단독환담과 회담이 진행되였다.

조미 두 나라 최고수뇌분들께서는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며 조미 두 나라사이의 불미스러운 관계를 끝장내고 극적으로 전환해나가기 위한 방도적인 문제들과 이를 해결함에 있어서 걸림돌로 되는 서로의 우려사항과 관심사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전적인 리해와 공감을 표시하시였다.

조미최고수뇌분들께서는 앞으로도 긴밀히 련계해나가며 조선반도비핵화와 조미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나가기 위한 생산적인 대화들을 재개하고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합의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트럼프대통령과의 훌륭한 친분관계가 있었기에 단 하루만에 오늘과 같은 극적인 만남이 성사될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앞으로도 자신과 트럼프대통령과의 훌륭한 관계는 남들이 예상 못하는 좋은 결과들을 계속 만들어낼것이며 부닥치는 난관과 장애들을 극복하는 신비스러운 힘으로 작용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조미 두 나라 최고수뇌분들께서는 회담결과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회담이 끝난 후 트럼프대통령과 작별인사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트럼프대통령과 문재인대통령이 판문점분리선에까지 나와 따뜻이 바래워드리였다.

*《로동신문》2019 년 7 월 1 일부